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북한사회변동 2020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목차

제1장 /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12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14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8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29

제2장 /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1. 서론	34
2. 의식주 생활 실태	36
3. 정보화 실태	72
4. 계층별 주민생활 비교	79
5. 평가와 시사점	87

제3장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1. 서론	94
2. 계층 인식과 소득 분화	96
3.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 활동	105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114
5. 평가와 시사점	120

제4장 / 보건 의료

1. 서론	126
2.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생각	127
3. 의료기관의 이용 실태 및 접근성 장애요인	131
4. 북한의료의 시장화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장애의 환자요인 부각	138
5. 평가와 시사점	140

제5장 /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1. 서론	144
2. 새로운 세대	146
3.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148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155
5. 평가와 시사점	160

제6장 / 총론

부록 / 설문지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5	〈표 3-2〉 북한 거주 당시 잘 사는 지역 응답 순위	102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7	〈표 3-3〉 북한 거주 당시 못 사는 지역 응답 순위	102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18	〈표 3-4〉 북한 거주 당시 잘 사는 직업 응답 순위	104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0	〈표 3-5〉 북한 거주 당시 못 사는 직업 응답 순위	104
〈표 1-5〉 탈북 전 최종거주지	22	〈표 3-6〉 주 소득 업종 응답률 순위	109
〈표 1-6〉 재북 교육수준 분포	23	〈표 3-7〉 주 소득 업종 수행 시 애로사항	112
〈표 1-7〉 재북 직업별 분포	24	〈표 3-8〉 경제적 자유 선호 점수 추이	116
〈표 1-8〉 재북 당시 당원 여부 분포	25	〈표 3-9〉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119
〈표 1-9〉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6	〈표 4-1〉 북한의료기관의 실태	134
〈표 1-10〉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26	〈표 5-1〉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149
〈표 1-11〉 결혼 상태 분포	28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28		
〈표 2-1〉 옷 구입처의 연도별 추이	49		
〈표 2-2〉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 대한 IPUS의 조사와 MICS 조사 비교	60		
〈표 2-3〉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2020)	81		
〈표 2-4〉 계층별 옷 구입 빈도(2020)	82		
〈표 2-5〉 계층별 살림집 유형(2020)	83		
〈표 2-6〉 계층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 비교(2020)	84		
〈표 3-1〉 북한주민들의 주관적 계층 변화 인식	99		

그림목차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연도별 추이	39	〈그림 2-21〉 컴퓨터 이용 경험과 이용 장소	77
〈그림 2-2〉 주식의 곡물 배율 연도별 추이	40	〈그림 2-22〉 인터넷 이용 경험 연도별 추이	78
〈그림 2-3〉 고기의 섭취 빈도 연도별 추이	42	〈그림 2-23〉 주관적 계층의식 연도별 추이	80
〈그림 2-4〉 식생활 종합 실태 연도별 추이	44	〈그림 2-24〉 계층별 남한 상품 사용 경험	85
〈그림 2-5〉 옷 구입 빈도 연도별 추이	46	〈그림 2-25〉 계층별 사교육 경험	86
〈그림 2-6〉 옷 구입 빈도	47	〈그림 3-1〉 북한주민의 사회적 계층인식 비율	97
〈그림 2-7〉 옷 구입처	50	〈그림 3-2〉 북한주민의 주관적 계층인식 비율	98
〈그림 2-8〉 옷 원산지 연도별 추이	51	〈그림 3-3〉 경제적 계층 분화의 이유	100
〈그림 2-9〉 살림집 유형 연도별 추이	55	〈그림 3-4〉 북한 가계의 공식/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106
〈그림 2-10〉 살림집 장만 방법 연도별 추이	56	〈그림 3-5〉 북한 가계의 공식/비공식 소득 구간 추이	107
〈그림 2-11〉 가구(家口) 내 내구재 보유 현황	60	〈그림 3-6〉 북한 가계의 계층별 소득분포	108
〈그림 2-12〉 가구 내 태양광 패널 보유 현황(2020)	62	〈그림 3-7〉 주 소득 업종의 원자재 출처	110
〈그림 2-13〉 월소득의 지출구조 연도별 추이	64	〈그림 3-8〉 주 소득 업종의 고용 경험	111
〈그림 2-14〉 남한 상품 사용 경험 연도별 추이	66	〈그림 3-9〉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113
〈그림 2-15〉 남한 상품 품목별 사용 경험	67	〈그림 3-10〉 북한 가게 소득 대비 뇌물 지출 비중 추이	113
〈그림 2-16〉 자녀 사교육 경험 연도별 추이	68	〈그림 3-11〉 분야별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찬성 비율	115
〈그림 2-17〉 자녀 사교육 분야별 경험	69	〈그림 3-12〉 재북 당시 경제 체제 지지도	116
〈그림 2-18〉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71	〈그림 3-13〉 장사 경험 유무에 따른 자본주의 지지도 차이	117
〈그림 2-19〉 휴대전화 보유율과 용도	74	〈그림 3-14〉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118
〈그림 2-20〉 휴대전화 이용 송금 경험(2020)	75	〈그림 4-1〉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대북지원 인지도부	126

그림목차

〈그림 4-2〉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지원의 규모에 대한 의견	127
〈그림 4-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대북지원에 대한 의견	128
〈그림 4-4〉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지원의 경향	129
〈그림 4-5〉 의료서비스 필요시 진료 받지 못한 경험(2020)	130
〈그림 4-6〉 의료서비스 필요시 진료 받지 못한 경험	131
〈그림 4-7〉 의료접근성 장애요인(2020)	132
〈그림 4-8〉 의료접근성 장애요인	133
〈그림 4-9〉 의료이용 필요시 진료거절 경험	135
〈그림 4-10〉 북한에서 자가치료 경험	136
〈그림 4-11〉 장마당 또는 개인약국 이용경험(2020)	137
〈그림 4-12〉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 사용 경험(2020)	137
〈그림 5-1〉 조사 참여자 연령 평균 추세선	145
〈그림 5-2〉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2018-2020)	147
〈그림 5-3〉 연령대별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149
〈그림 5-4〉 과외공부(개인강습) 경험에 따른 중학교 재학시 출석률	150
〈그림 5-5〉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152
〈그림 5-6〉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154
〈그림 5-7〉 제1중학교 진학 요인 우선순위	156
〈그림 5-8〉 대학 진학 요인 우선순위	159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연구개요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 모색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그리고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 변화가 어떤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일 것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연구의 장애물들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준, 정보화,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¹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귀하는 북한을 떠나 오기 전 약 1년 동안 보통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국 연도가 같더라도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최근 북한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탈북 시점과 입국 시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의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

¹ 2020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2006/001-011)

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연도 직전 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즉, 올해 2020년 조사의 표본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탈북한 후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탈북연도	6/13-7/16	5/20-7/7	5/22-7/6	6/10-8/8	6/8-8/6	7/20-8/31	8/9-9/6	7/25-9/13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2017						85		
2018						2	114	
2019							2	108
2020								1
총 계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주: 2018년 표본수 오기 수정

이처럼 조사 표본의 탈북연도를 제한함으로써 표집 과정과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동일한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입국자는 2,402명, 2011년 입국자는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 2013년 입국자는 1,514명, 2014년 입국자는 1,397명, 2015년 입국자는 1,275명, 2016년 입국자는 1,418명, 2017년 입국자는 1,127명, 2018년 입국자는 1,137명, 2019년 입국자는 1,047명,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12월 현재 229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²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 연구원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등 관계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해로 아홉 차례 실시하고 있는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정보·통신 환경 실태, 시장경제 활동과 소득 실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 실태, 보건 실태, 교육 실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

2020년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의 교육 실태 범주가 추가되었으며 구

체적으로는 중학교 출석률, 학교생활과 교원에 대한 생각, 제1중학교 및 대학교 진학 요인 등의 설문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가독성 향상과 설문 문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항의 배치 재조정과 문항 내 남한식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 주	설문내용	
의식주, 정보·통신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식사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 원산지 의류 주요 구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림집 형태 살림집 장만경로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 소유한 정보통신 기기 인터넷 이용 경험 인터넷 이용 장소 가족 내 의사결정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 지역의 빈부격차 직업의 빈부격차 월 평균 지출 비중 빈부격차의 발생요인 일상생활의 고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 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 식생활 형편 사교육 경험과 분야 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입 원천 자재/원료의 원산지 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 고용노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화의 대상 경제침체의 이유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
보건의료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 실태 의약품 구매 실태
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출석률 제1중학교 진학 요인 대학교 진학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중학교 교원에 대한 생각

2 통일부,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1년 2월 26일)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먼저 성별 구성의 경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의 여성 비율은 그보다 낮다.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이 2019년과 2020년에는 약 65%, 2018년 56%, 2017년 47%, 2016년 62%, 2015년 61%, 2014년 66%,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자료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서 2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남녀 합산 시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10대의 경우 4명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2 (66.7)	1 (33.3)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3 (75.0)	0 (0.0)	0 (0.0)	3 (100.0)	2 (50.0)	2 (50.0)
20대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42.4)	19 (57.6)	20 (54.1)	17 (45.9)	14 (38.8)	22 (61.2)
30대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52.4)	10 (47.6)	9 (34.6)	17 (65.4)	6 (33.3)	12 (66.7)
40대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50.0)	5 (50.0)	7 (29.2)	17 (70.8)	4 (28.6)	10 (71.4)

연령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0대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26.3)	14 (73.7)	5 (25.0)	15 (75.0)	8 (26.7)	22 (73.3)
60대 이상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0 (0.0)	6 (100.0)	3 (42.9)	4 (57.1)
합계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37 (33.9)	72 (66.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표 1-1〉를 참고하여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은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149명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여 이 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4년에 탈북하여 이 중 129명이 2014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17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135명이 2015년에, 3명이 2016년에 탈북하였다. 이 중 99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으며 39명이 2016년에 입국하였다. 2017년 조사의 경우 2016년도에 탈북한 조사대상 132명 중 19명만이 2017년에 입국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총 87명 중 85명이 2017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68명이 입국하였고 19명은 2018년에 입국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총 116명 중 114명이 2018년에 탈북하였고 2명만이 2019년에 탈북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총 109명 중 108명이 2019년에 탈북하였고 1명만이 2020년에 탈북하였다.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소요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개월 미만	0.0	3.4	0.0	1.4	1.5	2.3	0.9	2.8
1개월	0.0	26.8	30.8	21	27.3	27.6	22.4	14.7
2개월	29.3	48.3	29.0	22.5	32.6	21.8	31	35.8
3개월	47.4	8.1	14.4	15.2	12.1	10.3	11.2	12.8
4개월	8.3	2.0	6.8	14.5	8.3	20.7	18.1	18.3
5개월	5.3	4.7	2.1	15.2	8.3	5.7	8.6	3.7
6개월	1.5	2.7	1.4	2.9	2.3	4.6	5.2	6.4
7개월	3.8	2.0	0.7	1.4	0.8	1.1	0.9	2.8
8개월	1.5	1.3	0.0	0.7	3.8	4.6	0.9	1.8
9개월	0.8	0.7	1.4	1.4	2.3	0.0	0.0	0.0
10개월	2.3	0.0	3.4	0.7	0.0	0.0	0.0	0.0
11개월	0.0	0.0	0.0	1.4	0.8	0.0	0.0	0.0
13개월	0.0	0.0	0.0	0.0	0.0	1.1	0.0	0.0
14개월	0.0	0.0	0.0	0.0	0.0	0.0	0.9	0.9
무응답	0.0	0.0	0.0	1.4	0.0	0.0	0.0	0.0
평균(개월)	3.37	2.26	2.49	3.33	2.82	3.06	2.90	3.01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응답자들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평균 3.37개월(표준편차=1.72), 2.26개월(표준편차=1.61), 2.49개월(표준편차=1.99), 3.33개월(표준편차=2.35), 2.82개월(표준편차=2.12), 3.06개월(표준편차=2.33), 2.90개월

(표준편차=1.92)이었다. 2020년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탈북-입국 기간은 3.01개월(표준편차=1.99)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 조사대상자의 66.1%가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과 2017년, 2018년, 2019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각각 76.7%, 86.6%, 74.2%, 60.1%, 73.5%, 62.0%, 65.5%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의 경우 탈북 후 입국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 안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기 전의 최종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20년도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84.4%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2020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함경북도 출신이 58.8%, 양강도 출신이 17.8%, 함경남도 출신이 8.5%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2020년의 경우 양강도 출신의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작년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양	1 (0.8)	3 (2.0)	3 (2.1)	5 (3.6)	2 (1.5)	2 (2.3)	0 (0.0)	1 (0.9)
개성	0 (0.0)	0 (0.0)	0 (0.0)	0 (0.0)	1 (0.8)	1 (1.1)	1 (0.9)	0 (0.0)
남포	0 (0.0)	2 (1.3)	1 (0.7)	2 (1.4)	1 (0.8)	0 (0.0)	0 (0.0)	0 (0.0)
평안남도	2 (1.5)	4 (2.7)	3 (2.1)	2 (1.4)	0 (0.0)	2 (2.3)	0 (0.0)	2 (1.8)
평안북도	6 (4.5)	0 (0.0)	3 (2.1)	1 (0.7)	1 (0.8)	5 (5.7)	0 (0.0)	2 (1.8)
함경남도	11 (8.3)	9 (6.0)	5 (3.4)	4 (2.9)	6 (4.5)	4 (4.6)	5 (4.3)	5 (4.6)
함경북도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20 (23.0)	18 (15.5)	15 (13.8)
자강도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3 (2.8)
양강도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52 (59.8)	87 (75.0)	77 (70.6)
황해남도	0 (0.0)	1 (0.7)	1 (0.7)	0 (0.0)	4 (3.0)	1 (1.1)	0 (0.0)	0 (0.0)
황해북도	1 (0.8)	2 (1.3)	4 (1.3)	0 (0.0)	0 (0.0)	0 (0.0)	2 (1.7)	3 (2.8)
강원도	2 (1.5)	2 (1.3)	2 (1.4)	3 (2.2)	0 (0.0)	0 (0.0)	2 (1.7)	1 (0.9)
무응답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0 (0.0)
합계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급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3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약 60~70%가 고급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각각 16.5%, 13.4%,

19.9%, 13.0%, 7.6%, 5.7%, 6.9%, 10.1%를 차지하여 올해 조사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대졸자 이상 학력 비중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재북 학력 현황을 보면 고급중학교가 69.5%, 전문대 10.4%, 대학 이상 6.9%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통일부의 전체 모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표 1-6〉 재북 교육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교	16.5	13.4	19.9	13.0	7.6	5.7	6.9	10.1
전문학교	11.3	21.5	16.4	11.6	17.4	13.8	22.4	15.6
고급중학교	71.4	61.7	61.0	74.6	72.0	73.6	70.7	67
소학교	0.0	2.0	2.1	0.7	2.3	6.9	0.0	1.8
무학	0.8	0.0	0.7	0.0	0.8	0.0	0.0	2.8
무응답	-	1.3	-	-	-	-	-	1.8
전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한편 응답자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다는 응답자들은 2013년 이후 각각 31.6%, 30.9%, 26.2%, 22.5%, 43.9%, 32.2%, 26.7%, 26.6%로 2020년 노동자 출신은 이전년도 조사 수준과 유사하여 201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장사, 가정부인의 비율은 2013년부터 75.2%, 74.3%, 72.4%, 68.1%, 74.2%, 72.4%, 68.9%였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69.7%로 집계되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사무원

과 가정부인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작년 8.6%를 기록하였던 장사의 경우 18.3%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1-7〉 재북 직업별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동자	31.6	30.9	26.0	22.5	43.9	32.2	26.7	26.6
농민	3.8	7.4	4.8	9.4	3.8	11.5	3.4	5.5
사무원	9.8	12.1	8.9	10.9	6.1	6.9	8.6	5.5
전문가*	8.3	3.4	5.5	7.2	7.6	0.0	1.7	3.7
학생	6.0	7.4	4.8	4.3	2.3	13.8	7.8	11.9
군인	4.5	4.7	4.8	8.0	5.3	3.4	3.4	4.6
외화벌이 일군	2.3	0.0	4.1	2.9	3.8	0.0	1.7	2.8
장사	13.5	4.7	20.5	12.3	9.8	0.0	8.6	18.3
가정부인	16.5	18.8	11.6	13.0	10.6	21.8	21.6	13.8
무직 및 기타	3.8	10.1	8.2	9.4	6.8	10.3	16.4	4.6
무응답	-	0.7	0.7	-	-	-	-	0.9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2013년 이후 80%대를 유지하였다. 당원인 경우는 2013년 14.3%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 18.8%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는 12.8%가 되었다. 올해 2020년에는 총 14명의 당원의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자 6명, 사무원 3명, 전문가 1명, 군인 2명, 외화벌이 일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8〉 재북 당시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원	14.3	13.4	17.9	18.8	18.2	13.8	11.2	12.8
후보당원	0.0	0.7	0.7	0.0	0.8	0.0	0.0	0.9
비당원	85.7	85.2	81.4	81.2	80.3	83.9	87.1	84.4
무응답	-	0.7	0.7	-	0.8	-	0.9	1.8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탈북 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013년 조사 이후 증가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였지만 이후 2017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2019년 조사에서는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하락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이후 20%대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57.1%, 2014년 57.8%, 2015년 54.8%, 2016년 50.7%, 2017년 56.1%, 2018년 63.2%, 2019년 55.2%, 2020년 58.7%로 조사되었다.

〈표 1-9〉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2.6	24.8	19.3	26.1	20.5	19.5	22.4	9.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7.1	57.7	55.2	50.7	56.1	63.2	55.2	58.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3	17.4	25.5	23.2	23.5	17.2	21.6	31.2
무응답	-	-	-	-	-	-	-	0.9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는 혈육이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3년 65.4%, 2014년 69.1%로 지속 증가 후 2015년 41.8%로 감소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60.9%로 증가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7년 51.5%로 감소하였고 2018년 조사결과 다시 소폭 하락한 50.6%를 기록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70.7%로 약 20% 상승하였고, 올해 조사에서는 63.3%를 기록했다.

〈표 1-10〉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남한 친척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없다	34.6	30.9	58.2	39.1	48.5	49.4	29.3	36.7
있다	65.4	69.1	41.8	60.9	51.5	50.6	70.7	63.3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이탈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이 30.9%, 결혼이 55.0%였다. 2015년에는 미혼이 더욱 증가하여 39.0%였으며, 결혼은 42.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7.8%로 증가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미혼이 증가하여 42.0%였으며, 결혼은 47.1%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이혼은 2015년보다 감소하여 10.9%였다. 2017년의 조사에서는 미혼과 결혼이 각각 40.2%, 45.5%로 2016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혼의 경우 13.6%로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여 그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미혼 50.6%, 결혼 41.4%로 그간의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혼의 경우는 5.7%로 역대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미혼 비율이 33.6%로 급감한 반면 결혼 비율은 52.6%로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혼 비율 또한 13.8%로 지난해 5.7%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혼 비율이 44.0%로 다시 증가했고, 결혼 비율은 45.9%, 이혼 비율은 9.2%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표 1-11〉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상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혼	37.6	30.9	39.0	42.0	40.2	50.6	33.6	44.0
결혼(동거포함)	53.4	55.0	42.5	47.1	45.5	41.4	52.6	45.9
이혼	9.0	14.1	17.8	10.9	13.6	5.7	13.8	9.2
무응답	-	-	0.7	-	0.8	2.3	-	0.9
전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응답자들의 현재 자녀 수를 조사하였다. 〈표 1-12〉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56.8%, 2014년 57.0%, 2015년 56.8%, 2016년 52.1%, 2017년 55.3%, 2018년 43.6%, 2019년 51.8%, 2020년 46.7%의 응답자들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12가구이며, 2014년에는 19가구, 2015년에는 43가구, 2016년에는 40가구, 2017년에는 28가구, 2018년에는 14가구, 2019년에는 47가구, 2020년에는 26가구로 집계되었다.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명	38.4	34.2	39.7	43.5	43.2	52.9	43.1	46.8
1명	32.3	27.5	35.6	33.3	36.4	24.1	39.7	28.4
2명	24.1	29.5	21.2	18.8	18.9	19.5	12.1	18.3
3명	4.5	6.7	2.1	4.3	0.8	3.4	0.9	2.8
4명	0.8	1.3	1.4	-	0.8	0.0	2.6	0.9
5명	0.0	0.7	0.0	0.0	0.0	0.0	0.0	0.0
무응답	-	0.7	-	-	-	-	1.7	2.8
전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109명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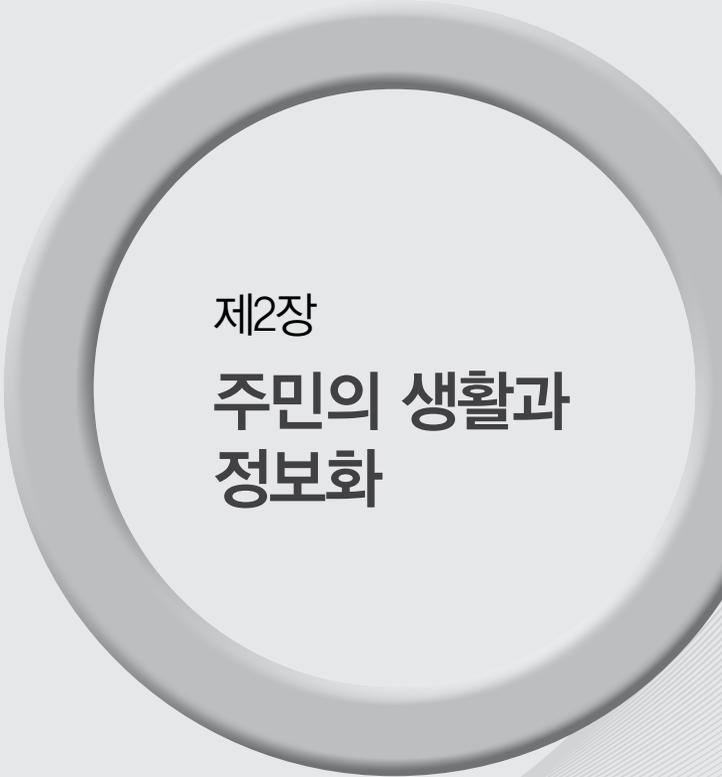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전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가능한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 내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시각과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인식하는 등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국내의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며, 이들의 가치판단과 행동 양식은 다른 지역 주민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의식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 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 연도가 아닌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재북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1. 서론

2020년은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되었던 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목표를 마무리 짓는 해이다. 이 전략목표에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의 정상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자생산, 선진영농법 도입, 유기농법 장려, 축산물 및 수산물, 과일 및 남새(채소)의 증산, 그리고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60~70%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 제시되었다.³ 이밖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부문의 현대화와 국산화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었고 이후 식료 가공 및 피복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이와 같은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의 정책이 북한주민의 생활과 의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주목한다.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3 FAO에 의하면, 북한 농경지의 60%에서만 기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축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FAO, GIEWS Update, 20 July (2017).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 및 부식물, 그리고 각종 식료품을 구매한다. 개인 식당이 크게 늘면서 집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시장은 탈국가화되고 있는 공공부문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주택(살림집)이다. 지난 10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에서 배정한 주택에서 살았던 응답자의 수보다 돈을 주고 산 주택에서 살았다는 응답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교통운수 부문 역시 탈국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서비스’와 ‘이관차’로 불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화물차들은 시장의 물류량과 물류 속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⁴

택시와 오토바이도 개인 소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동 속도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사교육 역시 대표적으로 탈국가화된 공공부문의 일부가 시장화된 영역이다. 세계 압박에 시달리는 교사들과 교수들 일부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신흥 부유층은 계층 상승에 쓸 튼튼한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의 사교육 투자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동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사회

4 ‘서비스’는 화물과 화물 주인이 함께 탑승하는 형태이고, ‘이관차’는 화물만 실어 운송 배달하는 형태로서 우리의 택배차와 기능이 유사하다.

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비롯해 가계경제 운영과 소비생활, 그리고 정보화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를 다룬다. 특히, 2020년 조사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과 주택 내 태양광 판넬 설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일부 주요 문항들의 경우 계층 변수와 교차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북한의 계층 불평등 실태를 잘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본 조사의 설문 문항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지표들을 사용한 국제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특히, 2014년에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SDHS(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와 2017년에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조사한 MICS(Multiple Indicators Cluster Survey)는 본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일부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조사 결과에서는 선전되고 있는 정책 성과와 현실의 유리(遊離)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2. 의식주 생활 실태

1) 식생활

5년 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로 ‘먹는 문제’를 언급했다. 먹는 문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2016-2020년) 중 첫 번째 목표이다. 이 5개년 전략목표 계획은 2020년에 종료되었다.⁵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2016-2019년까지 꾸준히 곡물 수입량을 늘려왔고, 농업생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경공업품 현대화 정책 기조 하에서 식료가공품 부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정권 10년 중 후반기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본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하루 식사 횟수, 주식의 곡물 배율, 고기섭취 빈도, 식생활 종합평가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식생활 실태 및 변화를 추적하며, 그 결과는 후술한 내용과 같다.

⁵ 2021년 1월 4일에 개막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2020년에 실시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2019년까지의 북한사회의 실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 하루 식사 횟수

2020년 조사에서 하루 세끼 이상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83.5%로 나타났다. <그림2-1>에 나타나듯 하루 세끼 이상의 식사 응답률은 2014년 74.5%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 86.9%로 크게 오른 이후 2016년 89.9%, 2017년 87.7%, 2018년 87.4%, 2019년 87.9%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2015년 이후 1% 미만의 응답률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결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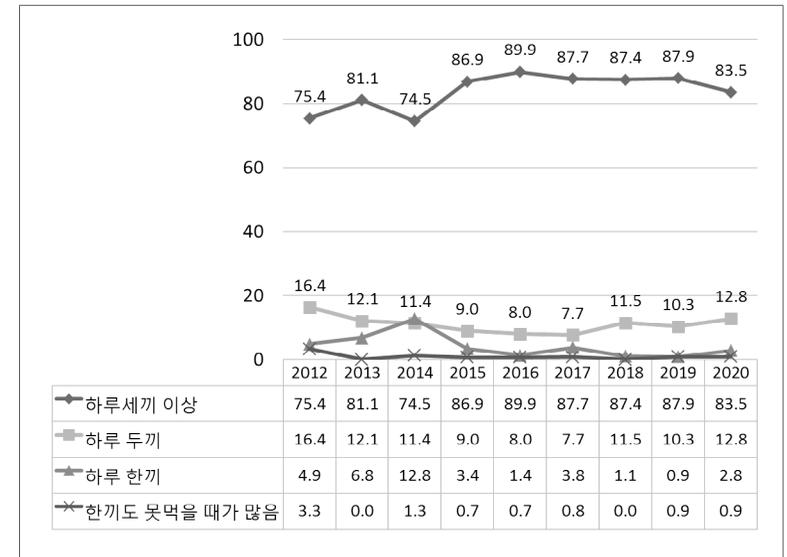
한국은행이 2020년에 발표한 ‘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19년 농림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북한농업동향』(22권2호, 2020년)에 의하면, 2019년 대중 곡물 수입액은 7천3백만 달러로 전년(2018년)도 6천3백만 달러에 크게 증가하였다.⁶

그런데 2019년에 북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조사에서는 3회 이상 식사 응답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4.4%p 감소했다. 대신 하루 두 끼 응답자의 비중은 2.5%p 증가했다. 농업생산량 증가와 곡물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의 식사 횟수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소득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사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중상’(월 50만 원 이상~100만원 초과) 그룹의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6 김영훈 외, “코로나-19 및 기상재해와 2020년 북한의 식량·농업”, 『KREI 북한농업동향』, 제22권 제2호, 2020, pp. 16-17.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연도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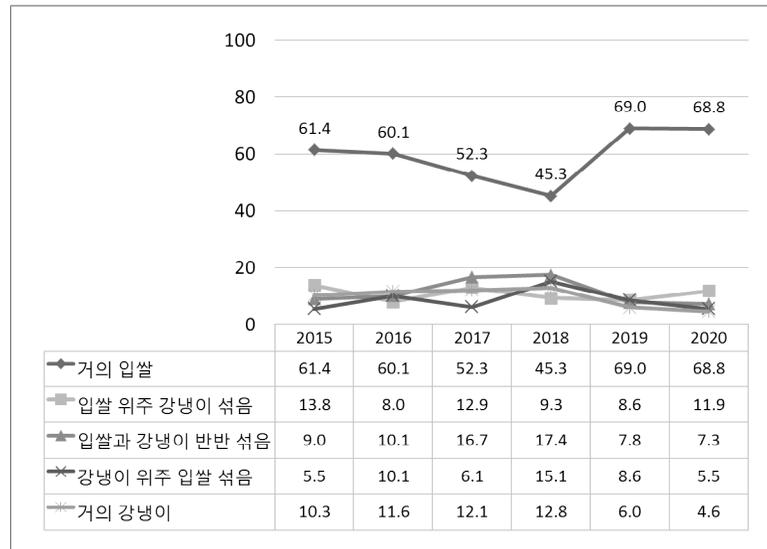
(2) 주식의 곡물 배율

식생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 외에도 질적 측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식생활의 질적 측정을 위해 주식의 곡물 배율과 고기 섭취 빈도를 조사했다. 우선, 주식의 곡물 배율을 보면, <그림 2-2>에서 나타나듯 주식으로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5년에는 61.4%였으나 2016년 60.1%, 2017년 52.3%, 2018년 45.3%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급상승하여 69.0%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에도 2019년 조사에 이어 2020년 조사에서도 높은 입쌀 섭취 응답률이 계속 유지된 것은 환율 및 쌀 시장가격의 안정, 그리고 입쌀 선호의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주식의 곡물 배율 연도별 추이

(단위: %)



(3) 고기의 섭취 빈도

유니세프(UNICEF)와 북한 중앙 통계국이 공동으로 2009년과 2017년에 실시한 ‘북한다중지표군집조사’(MICS: Multiple Index Cluster Survey)에 의하면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다. 저체중 비중은 18.8%에서 9.3%로, 발육부진 비중은 32.4%에서

19.1%로 감소하였다.⁷ 이와 같은 어린이의 영양 상태의 호전은 식생활 개선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2012년 세 개의 국제기구들(WFP, UNICEF, WHO)이 연합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의 결과인 ‘2012년 북한 전국영양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북한주민의 영양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5세~49세 연령대의 저체중 여성들의 경우 탄수화물 위주의 곡물 섭취율은 99.6%인 반면에, 육류와 생선 섭취율은 40.4%, 계란 섭취율은 7.7%에 불과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본 조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북한주민의 고기섭취 빈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그림2-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3.2%에서 2020년 10.1%로 상승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21.6%에서 2020년 44.0%로 상승했다. 이처럼 고기섭취의 양적 증가는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해 고기섭취 횟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거의 매일 먹었다’ 응답은 15.5% → 10.1%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은 46.6% → 44.0%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고기섭취 횟수가 감소한 데

⁷ Central Bureau of Statistic(CBS)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MICS), December 2010, p.31.; CBS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June 2018,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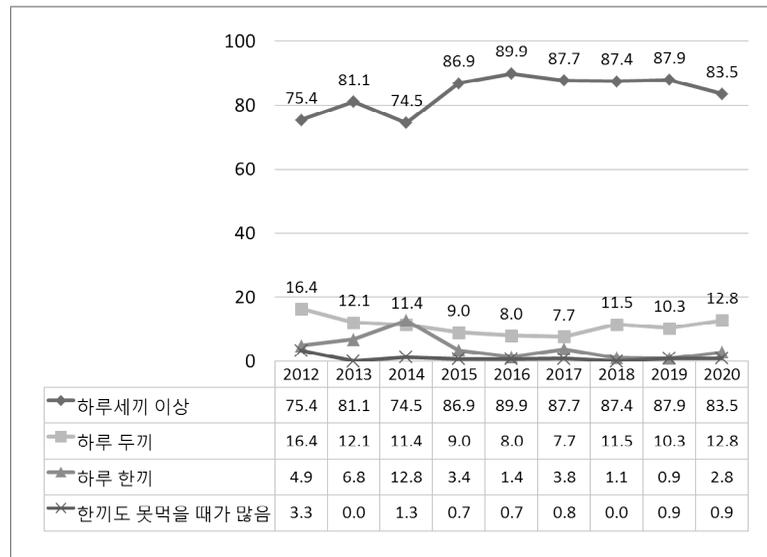
⁸ WFP, UNICEF and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March 2013, p. 58.

는 2019년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목할 부분은 젠더 간 영양불평등 문제이다. 성별 고기섭취 빈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의 응답을 합한 비율이 2012년에는 남성 27.3%, 여성 22.8%였는데, 2020년에는 남성 59.4%, 여성 51.3%로 나타났다. 8년 동안 남녀 모두 고기섭취 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남녀 간의 격차가 2012년 4.5%p에서 2020년 8.1%p로 커졌다. 이 결과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에서 젠더 간 불평등 구조는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 고기의 섭취 빈도 연도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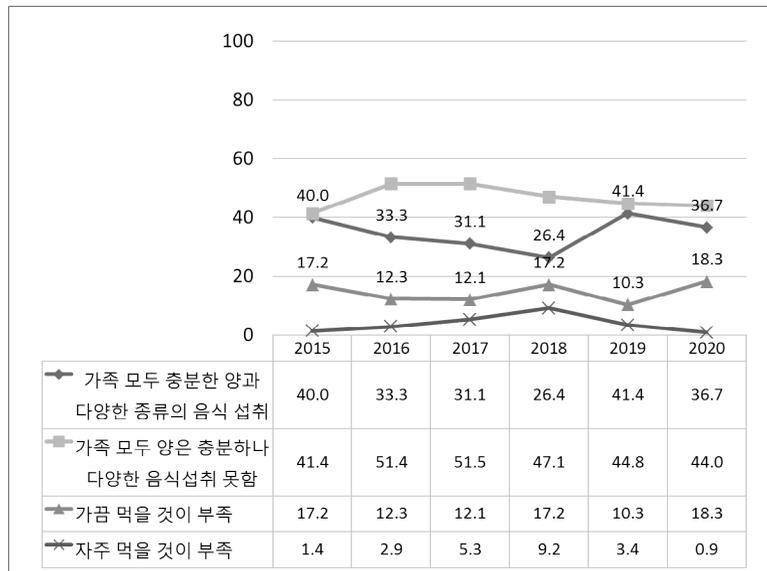


(4) 식생활 종합 실태

위에서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식생활은 장기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반면, 식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실태 평가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2-4〉를 보면 “가족 모두 원하는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5년 40.0%, 2016년 33.3%, 2017년 31.1%, 2018년 26.4%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41.4%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2020년 36.7%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런데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률은 2015년 1.4%, 2016년 2.9%, 2017년 5.3%, 2018년 9.2%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9년 3.4%로 급락하였고 2020년에는 0.9%로 최저점을 나타냈다. 위에서 결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의 식생활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식생활의 종합 실태 평가는 주식보다는 부식 섭취(고기 섭취 감소)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 식생활 종합 실태 연도별 추이

(단위: %)



2) 의생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용어를 빌리자면 의복은 사회적 지위를 구별 짓는 상징체계의 하나이다. 북한사회에서 시장의 확대와 사회계층화가 진행되면서 의복은 북한 주민에게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 ‘먹는 문제’ 다음으로 입고 쓰는 소비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주요 관심 대상으로 다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 초기부터 민생 과제의 하나로 경공업의

현대화와 함께 국산화를 꾸준히 강조했다. 1990년대 이후로 성장한 북한 시장은 중국산 일색의 소비품들로 가득찼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과 함께 민생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소비품의 국산화를 중요하게 다뤘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김정은 정권 내내 유지되고 있다. 북한사회의 소비시장은 2015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점은 맞는다. 휴대전화 단말기, 화장품, 생물(생수), 신발, 의류 등 다양한 공산품들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촉진되었다. 본 조사는 옷 구입 빈도, 옷 구입처, 옷 원산지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생활 실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옷 구입 빈도

옷 구입 빈도를 묻는 문항은 2019년 조사부터 일부 응답 선택항목의 변경이 있었다. 2019년 조사부터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기존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한테 얻어 입음”과 “살 필요가 없었음” 두 문항은 삭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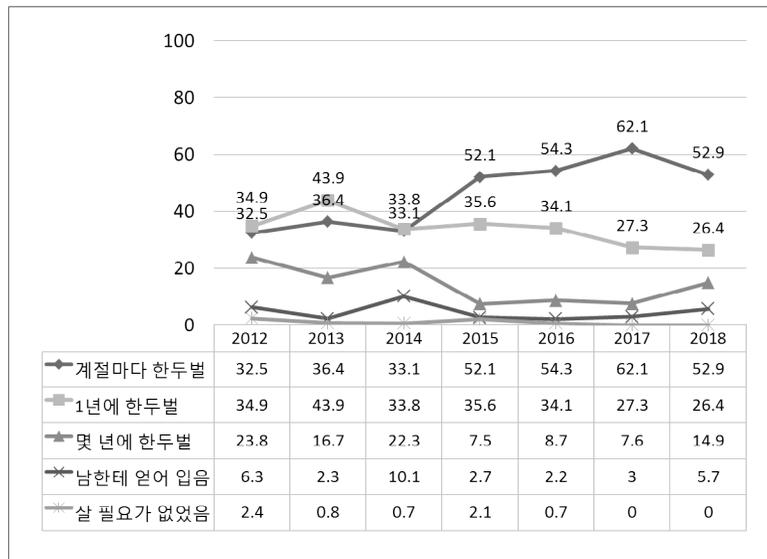
〈그림2-5〉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된 옷 구입 빈도의 연도별 추이이다.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는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은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2016년에 62.1%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2018년에 52.9%로 크게 하락했다. 선택항목 조정이 있었던 2019년 조사에서는 〈그림2-6〉에서 보듯이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이 56.0%로 다시 상승하였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45.0%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대신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응답은 2019년에는 18.1%, 2020년에 26.6%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결과는 기존 조사에 비해 북한주민의 옷 구입 빈도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응답과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을 합하면 71.6%로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과 비교해 2020년 북한 주민의 의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1년에 한두 벌 구매’ 응답이 전년대비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하위계층의 의생활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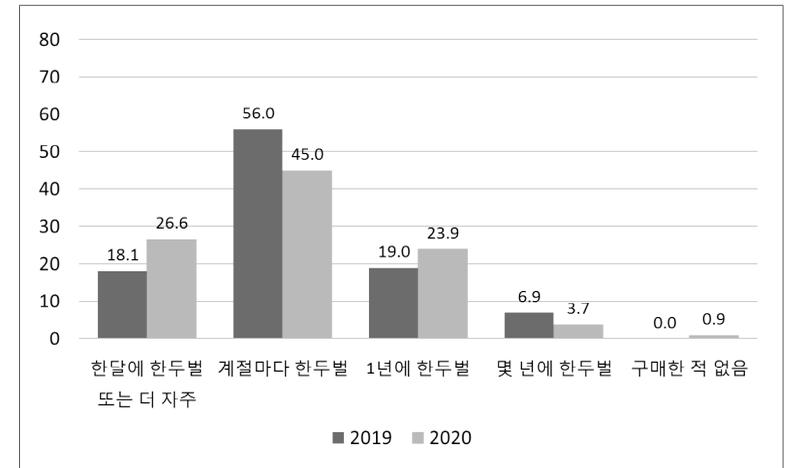
〈그림 2-5〉 옷 구입 빈도 연도별 추이

(단위: %)



〈그림 2-6〉 옷 구입 빈도

(단위: %)



(2) 옷 구입처

장마당으로 대표되던 북한의 시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중화·다원화·전문화의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 ‘장소적’ 범위를 넘어 공공부문의 ‘탈국가화’를 계기로 공간적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역시 개인상인, 기관·기업소, 협동단체, 외국자본가와 기업 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유통시장에서 국가의 비중과 개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상설시장의 매대 관리와 장세 징수를 비롯하여 대형쇼핑몰에 해당되는 광복지구상업중심, 백화점, 외화상점, 황금별상점 등 여러 형태의 유통시장이 국가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국가가

관에 수입금을 내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상점이 크게 늘어나 소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유통시장의 진화에 따라 북한 주민이 옷을 구입하는 곳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본 조사에 조사하고 있는 옷 구입처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2-1>을 보면, 옷 구입처로 시장(장마당)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2018년의 평균응답률을 보면, 시장(장마당)이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상점, 직매점, 백화점, 외화상점 등의 비중은 1% 안팎에 불과하다. 2015년 조사부터 백화점과 외화상점의 응답률이 비록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3% 안팎의 비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옷 구입처의 응답 선택사항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기존의 선택항목 중 국영상점과 직매점을 통합하였고, 7년 동안 거의 응답이 없었던 외국에서 직접 구입, 국가선물 또는 무상배급 항목은 모두 삭제하였다.

그 결과 <그림2-7>에서 나타나듯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시장(장마당)의 응답률은 2019년 88.8%, 2020년 86.2%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국영상점 및 직매점의 응답률과 백화점 및 외화상점의 응답률 상승이 눈에 띈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백화점, 외화상점'의 응답률이 11.0%로 2012~2018년까지 평균 응답률 1.2%와 비교해 상당한 성장이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의 소비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본 조사에는 개인상점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2021년 조사부터 개인상점 항목을 추가할 경우 응답분포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옷 구입처의 다변화는 북한 당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품의 국산화

정책과 함께 빈부격차에 따른 소비의 계층화와 관련이 있다.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시장화를 통해 개인간, 가구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소득의 격차는 사회 계층화를 촉진하였으며 소비 영역도 중저가의 대중 시장과 고가의 고급 시장으로 양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는 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옷 구입처 중 중저가 상품이 주로 유통되는 시장(장마당) 외에 고가의 고급 상품이 주로 취급되는 백화점 및 외화상점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고소득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 및 외화상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조사 결과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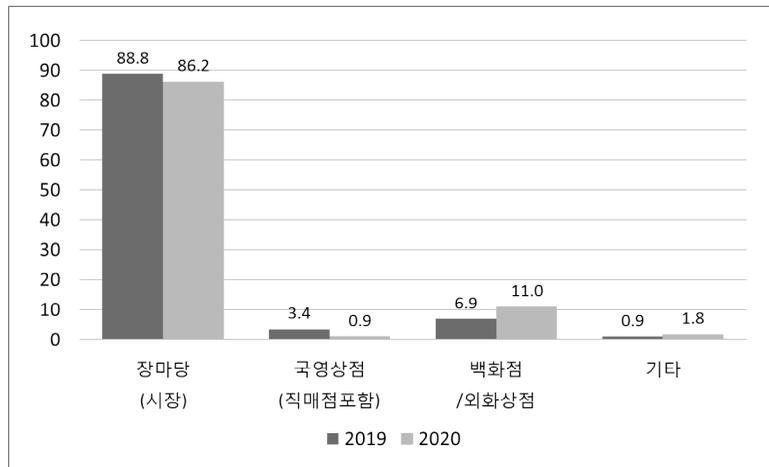
<표 2-1> 옷 구입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응답률
시장(장마당)	89.0	95.5	90.6	89.0	91.3	86.3	90.8	90.4
국영상점	0.8	0.8	0.0	0.0	0.0	0.8	0.0	0.3
직매점	0.0	0.0	0.7	0.0	0.0	0.0	1.1	0.3
백화점, 외화상점	0.8	0.0	0.0	3.4	1.4	3.0	0.0	1.2
외국에서 직접 구입	0.0	0.0	0.7	0.0	0.0	0.0	0.0	0.1
국가선물 또는 무상배급	0.0	0.0	0.7	0.0	0.0	0.0	0.0	0.1
무응답/오류	3.1	0.0	4.0	1.4	0.7	2.3	4.6	2.3
합계(N, %)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

〈그림 2-7〉 옷 구입처

(단위: %)



(3) 옷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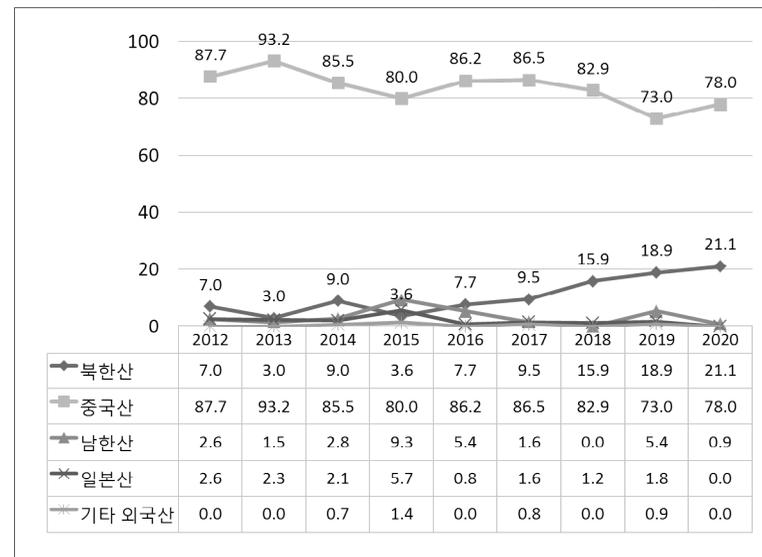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옷의 원산지는 김정은 정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경공업품의 국산화 정책과 직결된 것으로 경제정책 평가에 매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8〉에 나타나듯 전체 비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3년 조사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93.2%로 최고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서서히 하락세를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잠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2018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중국산의 비중이 73.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0년에 중국산 비중은 78.0%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북한산 비중은 2015년을 전환점으로 지난 5년간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인 변화

이다. 2015년에 3.6%에 불과했던 북한산 비중은 2020년 21.1%까지 상승했다. 이 결과는 북한 당국이 주력하고 있는 경공업품의 국산화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20.7.31.) 보고서에서도 경공업부문의 생산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옷 원산지 연도별 추이

(단위: %)



3) 주생활

북한에서는 주택은 ‘살림집’으로 불린다. 2009년 1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살림집법’은 2014년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의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진 셈인데, 이것은 지난 시기 주택이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살림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 살림집, 협동단체소유 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구분된다. 살림집법 제3조는 국가 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실은 이와 같은 제도와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살림집을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북한주민들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살림집을 마련하고 있다. 살림집법 제28조는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많은 살림집들이 ‘돈’과 ‘권력’에 의해 분배된다.

개인들 간에 살림집 거래가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살림집법 제35조에서는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43조에서는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살림집들은 무상 교환이 아닌 돈을 주고 사고 팔리는

사실상의(de facto) 사유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법적으로 북한의 살림집은 ‘임대’ 주택에 해당된다. 살림집법 제42조에서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대로라면 임대인은 국가이고 임차인은 주민인 셈이다. 어떤 경로로 획득한 살림집이든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은 살림집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주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살림집 유형, 살림집 장만방법, 살림집 내 내구재 실태를 조사하였다.

(1) 살림집 유형

북한에서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선전되고 있는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에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마천루처럼 서 있는 신축 고층아파트는 ‘성공’과 ‘차별’의 욕망을 자극하는 상징물이다. 북한 중앙통계국과 유엔 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현지조사하여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⁹에 따르면 북한의 유형별 살림집 분포는 단독주택 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 25.0%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북한 주민 4명 중 1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셈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양강도 거주자의 비중이 70.6%에 달한다. 유엔인구기금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양강도의 살림집 유형

⁹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별 분포를 보면 단독주택 18.8%, 연립주택 68.5%, 아파트 12.1%로 전체 평균 분포에 비해 연립주택의 비중이 훨씬 높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¹⁰ 살림집 유형 분포로 보면 양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낙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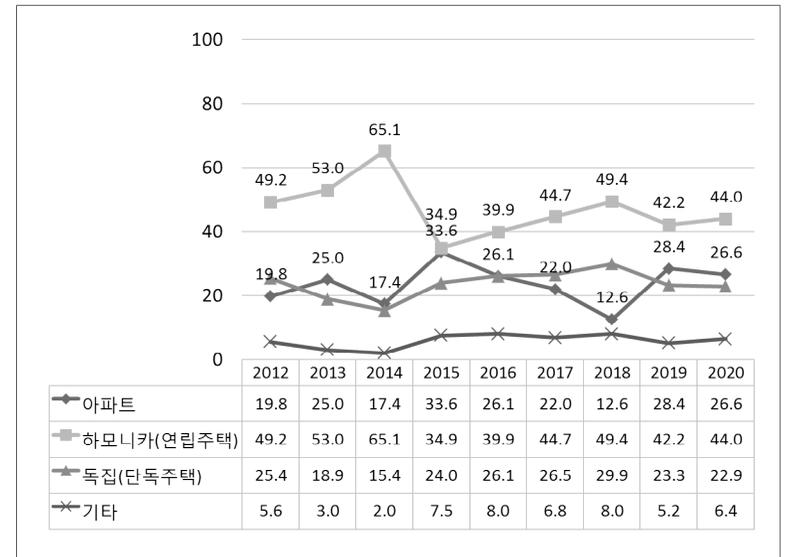
2020년 조사에서는 <그림2-9>에서 보이듯 아파트 26.6%, 연립주택 44.0%, 단독주택 22.9%로 나타났다. 위의 유엔인구기금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양강도 지역의 유형별 살림집 분포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은 높고, 연립주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조사와 유엔인구기금의 조사에서 주택유형별 분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유엔인구기금이 조사한 시점은 2014년이고 본 조사가 측정한 시점은 2019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적 경과가 있었고, 둘째, 본 조사의 표본이 양강도 평균 소득수준보다 높은 소득자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차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소득수준과 살림집의 유형 간의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높고, 저소득자의 경우는 연립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_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December 2015, p. 12.

<그림 2-9> 살림집 유형 연도별 추이

(단위: %)



(2) 살림집 장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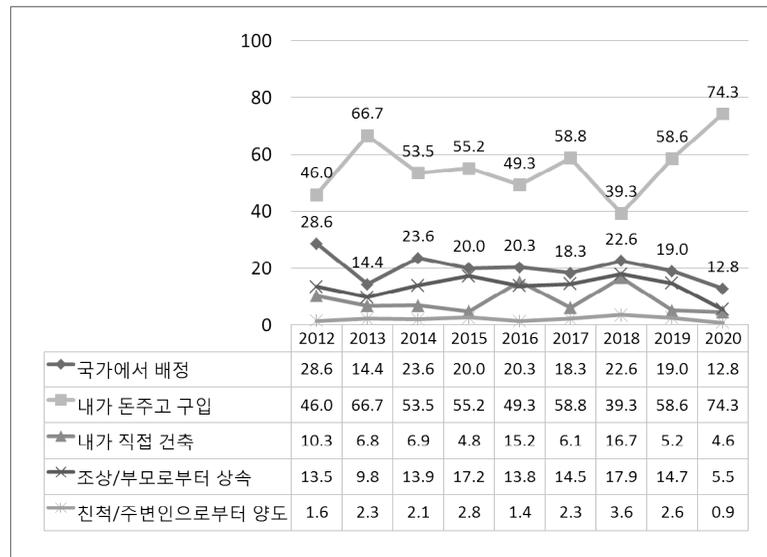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림집법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살림집의 사적 매매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북한에서는 살림집은 사실상(de facto)의 사유재산과 같이 개인 간에 사고 팔렸다. 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림2-10>은 살림집을 장만하는 방법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내가 돈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내가 돈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74.3%까지 치솟았다.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해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상의 살림집 장만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북한에서 살림집에 대한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설령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이라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주민 개인 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팔리며 상속할 수 있는 개인 자산(assets)으로 취급되고 있다. 응답자들이 대부분이 양강도와 같은 접경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 본 조사에서 나타난 “내가 돈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살림집이 사유재산처럼 취급되고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회적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림 2-10〉 살림집 장만 방법 연도별 추이

(단위: %)



(3) 내구재 보유 현황

2019년 조사에 처음으로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살림집 내구재 지표들은 유니세프(UNICEF)가 2017년 북한의 중앙 통계국과 함께 조사하여 발표한 2017 DPR Korea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에 포함된 가구 및 개인 자산(assets) 지표들을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TV,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 세탁기, CD플레이어, 텃밭, 가축, 손목시계, 자전거, 오토바이(스쿠터 포함), 달구지, 컴퓨터(태블릿 포함), 이동전화(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다.¹¹ 반면 본 조사에서는 TV, 냉장고(냉동고 포함), 전기밥솥, 세탁기, CD플레이어, 유선전화(집전화), 이동전화(휴대전화), 컴퓨터(노트북 포함), 자전거, 오토바이, 가축, 텃밭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그림 2-11〉에 나타나듯 TV의 보유율이 90.8%로 가장 높았다. CD플레이어 보유율은 2019년에 81.0%에서 2020년 62.4%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이 영상물을 시청할 때 CD보다는 USB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CD플레이어 보유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냉동고 포함)와 세탁기의 보유율은 각각 35.8%와 23.9%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내구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냉장고와 세탁기의 보유율이 낮은 것은 북한주민의 구매력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하고 제한적인 전력 공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안정적인 고(高)전

11_Central Bureau of Statistic, DPRK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June 2018, p. 18.

력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세탁기는 수도관이 개별 가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요구된다. 2017년 북한다중지표군집조사(2017 DPR Korea MICS) 결과에 의하면, 살림집까지 수도관으로 식수가 공급되는 가구 비율은 55.6%이며, 본 조사 응답자의 출신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양강도 지역의 경우는 49.5%로 더 낮다.¹²

한편 고전력이 필요한 전열기구인 전기밥솥의 경우는 보유율이 2019년에는 69%, 2020년에는 59.6%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한해 전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밥솥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집전화와 휴대전화 보유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모두 58.7% 동률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7년 북한다중지표군집조사(2017 DPR Korea MICS) 보고서에서 발표된 전체 평균 보유율 66.4%보다 낮고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양강도의 휴대전화 보유율 59.3%과는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으로 집 유선전화의 보유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보급과 동시에 집 유선전화 보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 유선전화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집 유선전화 성공과 비즈니스의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에 유선전화를 설치하는데 돈과 권력이 모두 필요했다면, 이제는 돈만 있어도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가구의 수요가 늘어났고, 또한 개인집에서

장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 유선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밖에 눈에 띄는 항목은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보유율이다. 본 조사에서는 각각 65.1%와 24.8%로 나타났는데 둘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17년 북한다중지표군집조사(2017 DPR Korea MICS) 보고서에서는 동일 항목의 보유율이 각각 83.1%와 5.2%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유니세프의 조사와 비교해 자전거의 보유율은 낮게 오토바이의 보유율은 높게 나타났다.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 소유가 제한받는 품목으로 대체로 개인이 구입하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하여야만 보유할 수 있고 개인 소유를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조사에서 측정된 24.8%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변동적 측면에서 자전거가 아닌 엔진이 달린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는 이동 속도를 빠르게 단축시켜 재화와 서비스 유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별 가구의 오토바이 보유율의 증가는 향후 북한의 잠재적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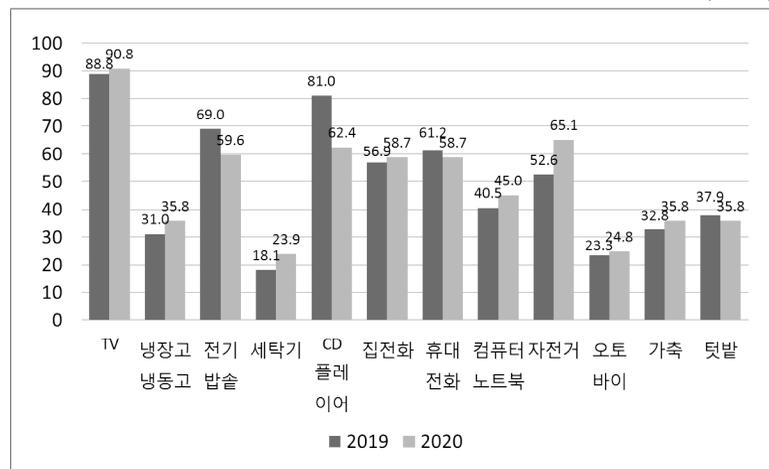
컴퓨터의 보유율 또한 2017년 북한 MICS 보고서에서는 18.7%로 나타났던 것에 반해 본 조사에서는 2019년 40.5%, 2020년 45.0%로 높게 조사됐으며, 북한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을 고려했을 때 향후 컴퓨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역시 개별 가구가 보유할 경우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거나 보유를 은폐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과 공동조사한 MICS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본 조사에서 컴퓨터의 보유율이 높

12_Central Bureau of Statistic, DPRK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June 2018, p. 142.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데스크탑(desktop) 형태의 컴퓨터보다는 단속을 피하는데 용이한 랩탑(laptop) 형태의 노트북 보유를 더 선호한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점이다.

〈그림 2-11〉 가구(家口) 내 내구재 보유 현황

(단위: %)



〈표 2-2〉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 대한 IPUS의 조사와 MICS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IPUS 조사(2020)	MICS(2018)
TV	90.8	98.2
냉장고	35.8	30.3
전기밥솥	59.6	62.6
세탁기	23.9	15.5
CD플레이어	62.4	75.5
덧발	35.8	53.7
가축	35.8	53.9
자전거	65.1	83.1

오토바이	24.8	5.2
컴퓨터	45.0	18.7
집전화(유선)	58.7	미포함
이동전화	58.7	66.4

* IPUS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20년에 조사한 것으로 2019년의 북한 상황을 측정하였으며, MICS는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2017년에 공동 조사하여 2018년에 발표한 자료로 두 조사의 측정 시점에서 2년간의 차이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 속하지만 개별 가구의 전기·전자제품의 보유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자가 태양광 발전 체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북한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이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019년에 늘어난 수만kw의 발전능력에서 86%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였다.¹³

전국적으로 자가 부담으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축전지와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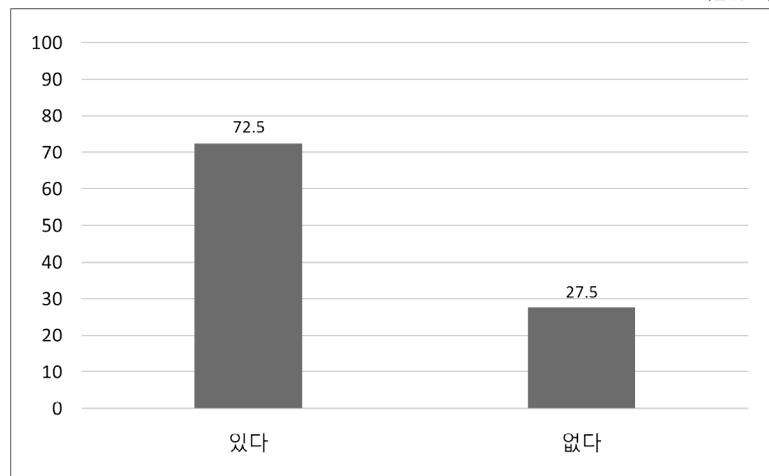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2020년 조사에 처음으로 가구 내 태양광 판넬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그림 2-12>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72.5%가 태양광 판넬을 집에 설치했다고 응답해 태양광 판넬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을 활용한 자가 전력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설비 개선으로 전기효율이 높

13_“다양한 에너지자원 개발리용”, <조선중앙통신> (2019.11.11.).

아지면 북한 주민의 가구별 내구재 보유율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 가구 내 태양광 패널 보유 현황(2020)

(단위: %)



4) 가계경제 생활

(1) 가계 지출구조

북한주민의 가계경제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별 월소득의 지출 내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그림2-13〉와 같이 월 소득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내내 식비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6년 동안 식비의 평균 응답률은 43.4%이다.

남한의 경우 2019년 가계동향조사(전국가구 기준)에서 파악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비중은 13.5%로 북한의 1/3 수준에 불과하다.¹⁴ 북한 가계지출에서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음으로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의류비로 6년 동안 평균 응답률이 19.5%이다. 남한의 경우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의류 및 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북한이 남한보다 의류비 지출이 3배 이상 높다. 이 비교 결과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의류 및 신발을 더 자주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류의 시장가격이 식료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한의 경우 주거비가 가구 총지출에서 11.3%를 차지하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9.9%(2020년)로 나타났는데 2015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북한의 경우 주택 사용료가 매우 낮다는 점, 주택이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9%인 것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림집의 사적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건축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거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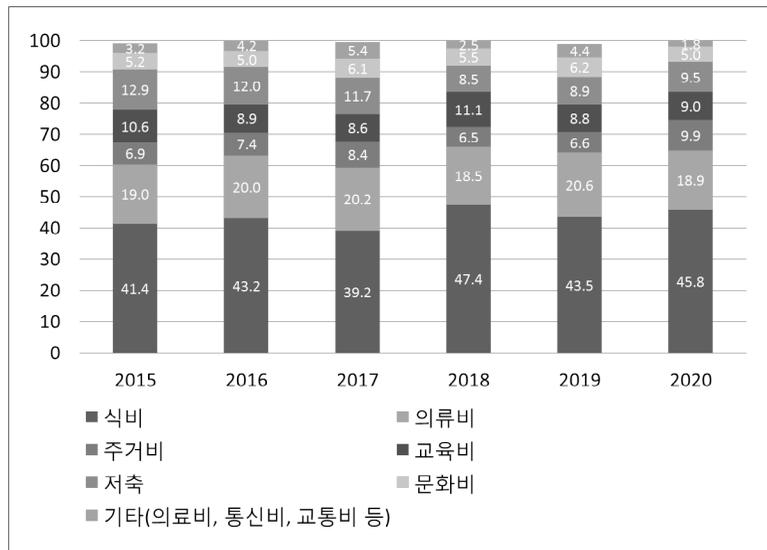
그밖에 교육비 비중은 9.0%로 나타났는데 사교육 열풍이 심한 남한의 경우 8.3%인 점을 감안했을 때 무상교육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가계의 교육비 비중이 남한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¹⁴ 통계청,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2020.5.7.)

무상교육 제도가 형해화되어 공교육에서조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북한교육의 현주소이다.

〈그림 2-13〉 월소득의 지출구조 연도별 추이

(단위: %)



(2) 남한 상품 경험

북한의 시장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중 중국산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한산과 일본산 상품들도 비법적이지만 얼마든지 사고 팔린다. 특히, 남한산 상품은 공식적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단속도 심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서 남한상품의 선호도는 높다. 남한상품이 질적으로 우수하기도 하지만 남한의 문화콘텐츠, 소위 한류의 영향으로 북한주민들의 남한상품 소비에 대한 관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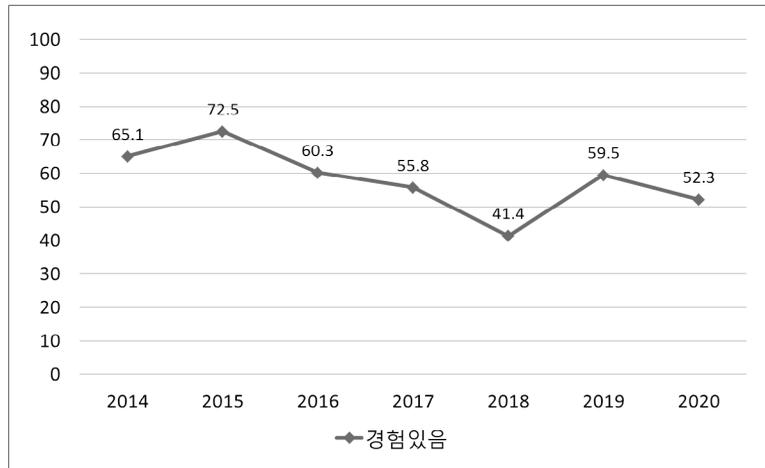
높은 편이다.

〈그림 2-14〉은 남한 상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에는 남한 상품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72.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8년까지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0년 다시 하락하며 최근 3년 동안 불안정한 추세를 보였다. 남한상품 경험은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북한 내 남한 상품 경험 응답률도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으면서 4월과 9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재개되었다. 2019년 조사는 이와 같이 변화한 남북관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남한 상품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59.5%로 비록 2015년의 최고 수준만큼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전년대비 18.1%p 급등한 것은 변화한 남북관계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9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러한 관계 변화가 반영되어 2020년 조사에서 응답률이 다시 52.3%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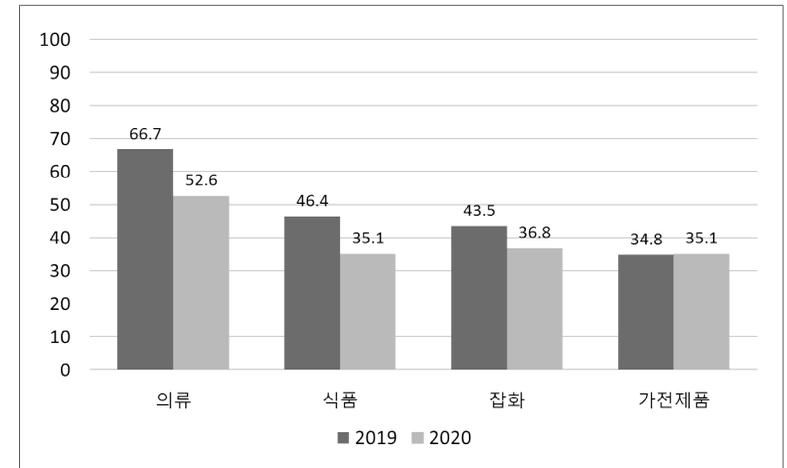
〈그림 2-14〉 남한 상품 사용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



〈그림 2-15〉 남한 상품 품목별 사용 경험

(단위: %)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남한 상품의 품목별(복수 응답) 현황을 보면, 〈그림 2-15〉에서 보이듯 의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식료품, 잡화, 가전제품은 모두 30%대 중반의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품목에서 전년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수 응답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남한 상품 사용 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사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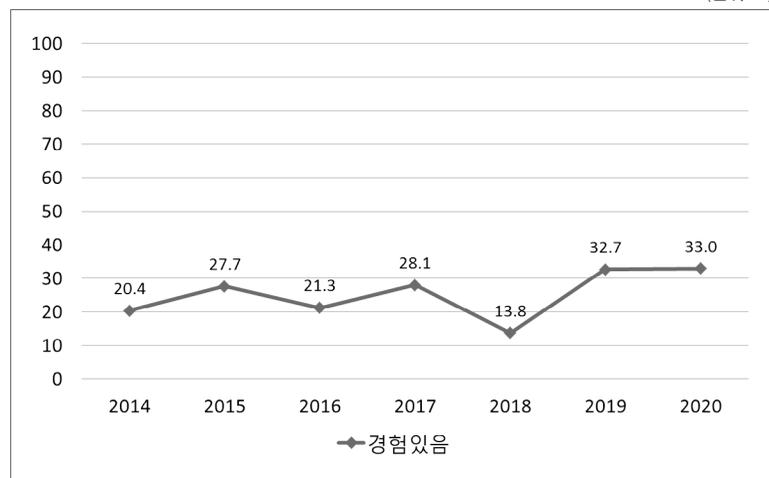
북한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경제 침체는 공교육의 약화를 초래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인 교육부문의 ‘탈국가화’는 사교육 시장을 양산하고 있다. 계층 상승과 출세를 위해 자녀의 사교육에 투자하는 부유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궁핍한 교원과 교수들은 생계 활로로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교육의 확대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는 한편으로는 교육 불평등의 확대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정치적 구호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무상교육의 현실을 방증한다.

〈그림 2-16〉에서 나타나듯 2014년부터 2020년 조사 기간 동안 사교

육 경험 응답률은 불안정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에는 13.8%로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32.7%로 급상승하여 2020년 33.0%로 최고점을 나타냈다. 2018년에는 예년과 달리 표본수가 크게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된 점을 고려했을 때 2018년의 수치는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사교육의 경험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를 시작한 2014년(20.4%)에서 6년이 경과한 2020년(33.0%)까지 사교육 경험 응답률은 12.6%p가 상승하였다.

〈그림 2-16〉 자녀 사교육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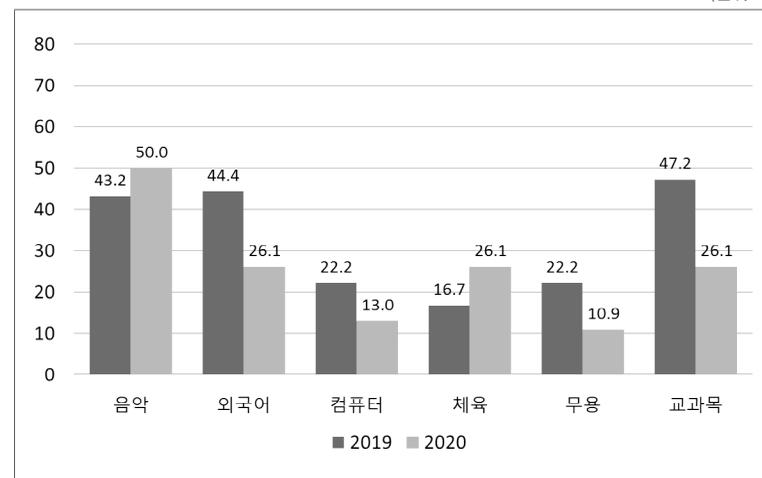
〈그림 2-17〉는 자녀의 사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사교육의 대상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인 항목은 전년도 조사 결과와 달리 올해는 ‘음악’(50.0%)으로 사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 중 절반이 악기나 노래와 같은 음악 분야에서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교과목’의 경우 올해는 26.1%로 외국어 응답률(26.1%)과 동률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내신 성적 관리 차원에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요구 때문에 외국어를 개인 교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보화에 대한 높은 정책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교육으로 배우는 응답률은 2019년 22.2%에서 2020년 13.0%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17〉 자녀 사교육 분야별 경험

(단위: %)



(4) 가족 내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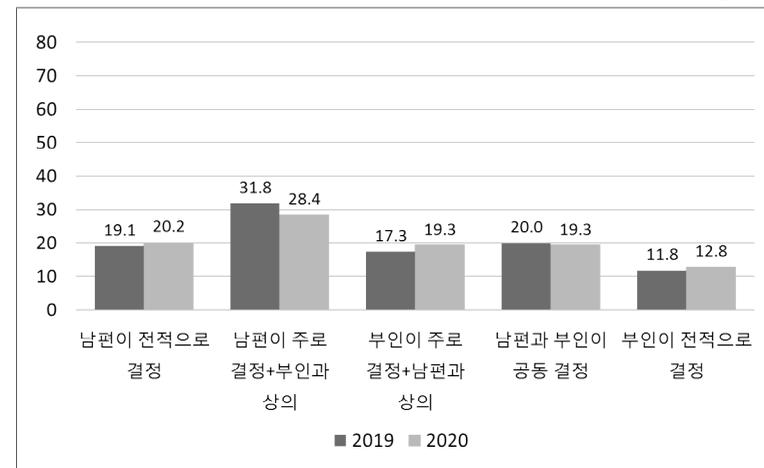
북한에서 국가(최고지도자)와 사회(인민)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연결된다.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아버이’로 호칭되고 인민을 인덕정치로 보살피며, 그 대가로 인민은 수령(아버이)에게 충과 효로 보답하는 가족주의적 사회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체제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의 가장 말단 조직인 가족 역시 남자 세대주 중심의 가부장적 구조이다. 배급제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물질 토대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제가 붕괴하자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여성이 가계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요 주체가 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2-18〉은 가족 안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준다. 2019년 조사부터 선택 항목에 “부인이 주로 결정하되 남편과 함께 상의하였다”가 추가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0.2%로 이 설문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2015년 조사에서 29.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9.5%p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꼭 가족 내 남편의 지위 하락과 반대로 여성의 지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에 22.5%였으나 2020년에는 12.8%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남편과 여성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 역시 2015년 28.6%에서 2020년 19.3%로 감소했다.

흥미로운 변화는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는 응답은 2019년 31.8%에서 2020년 28.4%로 감소했는데, 반대로 “부인이 주로 결정하되 남편과 함께 상의하였다”는 응답은 2019년 17.3%에서 2020년 19.3%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2-18〉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단위: %)



3. 정보화 실태

2000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시가 거론된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계승되었고, 특히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화가 강조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9년 8월 헌법에는 경제발전의 지향점이 기존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정보화'가 추가되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제26조)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정보화를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학기술전당 건립,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운동, 원격교육대학 운영, 기업소·공장·농장 내 과학기술보급실 설치 등 김정은 정권에서 다양한 정보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는 "2019년 실력으로 빛내인 청년학생들" 보도를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은 2019년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대회인 '코드쉐프'에서 3차례 1등을 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 12월 3일자 <노동신문> 1면에 "두뇌경쟁무대에서 련전련승의 개가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6월~11월까지 진행된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인 '코드쉐프' 대회에서 6연승을 했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일상적인 소통은 물론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온라인상점이 개설되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점이나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방식이 시범 도입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현장에는 전자교과서가 시범 도입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에 '미래원'으로 불리는 정보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 깊숙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정보화의 성과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발전 수준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봉쇄는 북한의 정보화의 확대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심지어 내부 네트워크망인 인트라넷조차도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1) 휴대전화

2020년 조사 기준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보유했다는 응답률은 56.0%로 나타났다. 이 응답률은 전년대비 6.9%p 감소한 수치이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인해 개인별 휴대전화 보유율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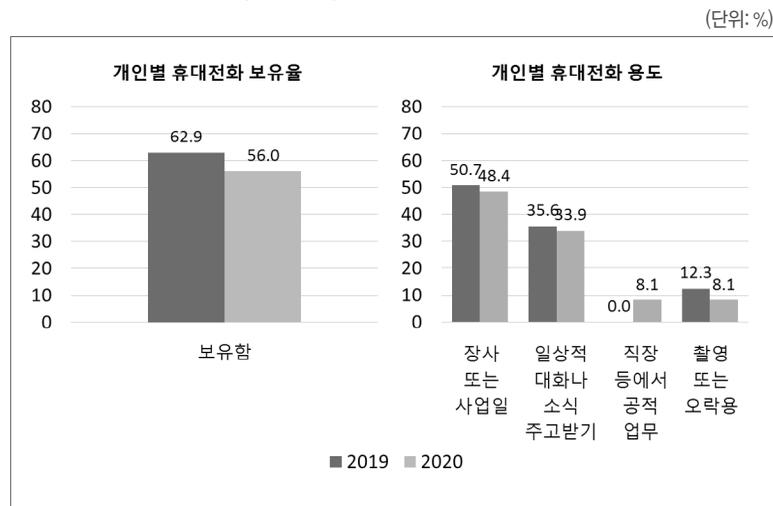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사용 용도는 <그림 2-1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장사 또는 사업일'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다. 북한에서는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데 그리고 물가나 환율 시세를 파악하는데 휴대전화가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사용 용도는 '일상적인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33.9%)이다. 이 응답결과는 정보 유통 및 사

회적 커뮤니케이션 증대에 휴대전화가 주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 전년조사와 달리 2020년 조사에서는 ‘공적 업무’ 응답률이 8.1%로 집계되었는데, 이 결과는 공적 영역에서도 업무 효율을 위해 휴대전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놀이(게임) 등 오락용’ 응답은 8.1%로 낮은 편인데, 만약 조사 표본에 10대 연령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용도의 응답률은 훨씬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과 인터뷰를 해보면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놀이(게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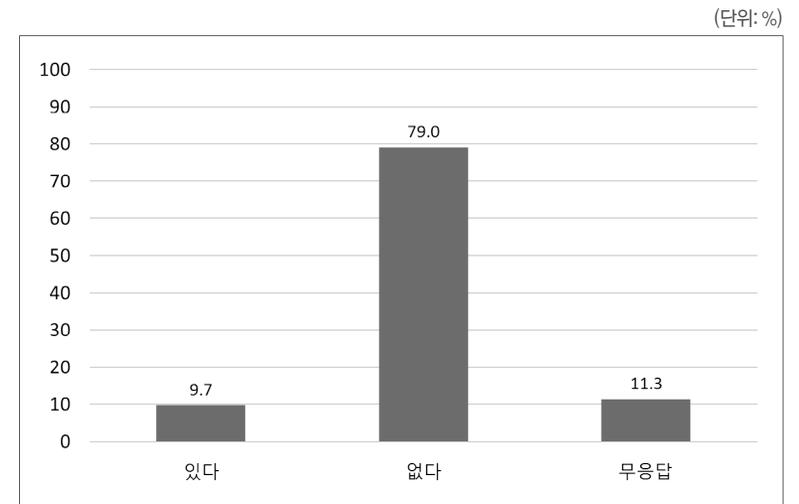
〈그림 2-19〉 휴대전화 보유율과 용도



* 촬영 및 오락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놀이(게임) 등 오락용

2020년 조사에는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은 북한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특히,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T기기인 휴대전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그림 2-20〉에서 보이듯 아직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 거래는 거의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그림 2-20〉 휴대전화 이용 송금 경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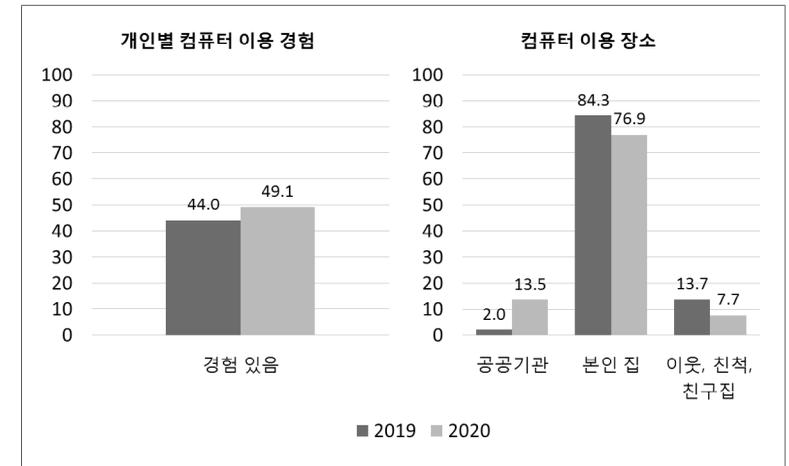
2) 컴퓨터

정보화의 두 번째 지표인 컴퓨터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 2-21>에서 보듯이 컴퓨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5.1%p가 증가한 49.1%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 컴퓨터의 이용 경험 응답률이 27.4%였던 것과 비교해 6년 사이에 21.7%p 증가하였다. 컴퓨터 이용 경험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의 효과가 사회의 기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에도 컴퓨터 이용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별 컴퓨터 이용 경험 응답을 비교했을 때 젠더 간 정보격차가 크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난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컴퓨터 이용 경험이 54.1%,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44.4%로 거의 10%p 가까이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젠더 간 정보격차는 2017년 북한의 MICS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MIC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남성(15세~49세)의 컴퓨터 이용 경험률은 51.0%, 여성(15세~49세)의 이용 경험률은 41.7%로 나타났다.¹⁵ 교육과 직업에서 나타나는 젠더 간 기회 불평등이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1> 컴퓨터 이용 경험과 이용 장소

(단위: %)



3) 인터넷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보화 지표는 네트워크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광명’으로 불리는 국가망을 통해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소, 교육기관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인 개별 가구들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성과에 대한 북한당국의 선전 내용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정보네트워크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7년 북한의 MICS 보고서에 의하면 집에서 인터넷을 접속했다는 가구의 응답률은 1.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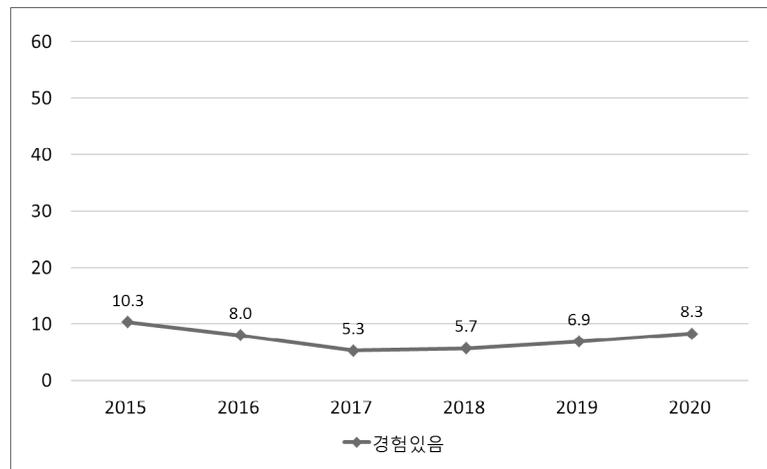
¹⁵ CBS, DPRK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pp. 32-33.

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북한주민의 인트라넷 이용 경험은 MICS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2>에서 보이듯 2020년 조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이용 경험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인트라넷과 같이 정보네트워크 접근 경험의 증가 속도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인트라넷 이용 장소는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응답됐으며,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개별 가구의 인트라넷 접속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2> 인트라넷 이용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



16_Central Bureau of Statistic, DPRK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June 2018, p. 31.

4. 계층별 주민생활 비교

1) 계층의 구성과 특징

과거 국가의 공공배급제도는 아주 소수의 특권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평균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전국민 대상의 공공배급제도 대신 ‘선택적’ 배급제도로 전환한 이후 199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시장화로 인해 북한사회는 빠르게 계층 사회로 변화했다. 소득의 격차는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에서의 차등을 발생하고, 소비생활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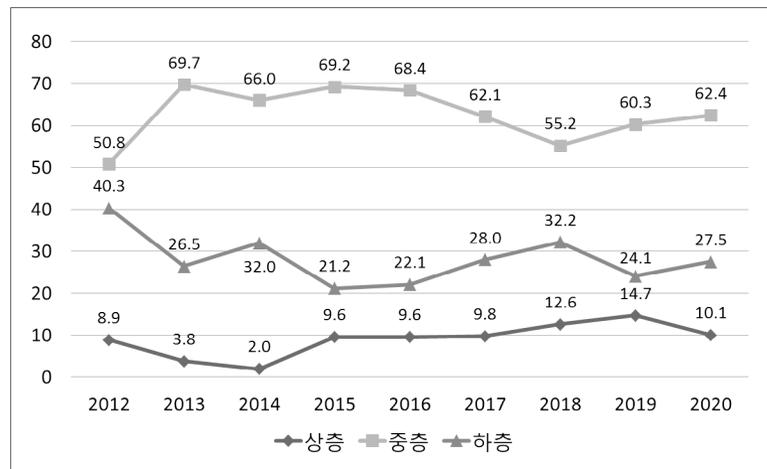
<그림 2-23>는 2012년~2020년 조사 기간에 응답자들이 탈북 직전에 자신의 계층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응답한 결과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중층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반등하여 2020년 중층의 비중이 62.4%를 나타냈다. 반면, 상층의 비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하락하여 10.1%의 비중을 나타냈다. 하층의 비중은 중층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크게 하락 후 2020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7.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가 실제로 북한사회의 계층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북한의 MICS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재산지수(Wealth Index)가 포함되었다. 재산지수는 상위 40%, 중위 40%, 하위 20%로 구성된다. 본 조사의 표본 구성에서 양강도 지역의 비중이 70.6%인 점을

감안하여 양강도의 재산지수 분포를 보면, 상위 40%는 17.8%, 중위 40%는 18.9%, 하위 63.2%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본 조사의 계층의식 분포를 비교해 보면, 중층은 과대표집되었고 하층은 과소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년에 탈북할 때 지불되는 브로커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기간 내에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높은 브로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조사의 계층 분포에서 상층과 중층이 과대표집되고, 하층은 과소표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23〉 주관적 계층의식 연도별 추이

(단위: %)



2) 계층별 생활 비교

계층 간 식생활 격차는 주식보다는 부식 섭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부식 섭취의 경우도 식물성 부식보다는 동물성 부식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 영유아의 발육과 영양 상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 계층별 비교를 해보면, 〈표 2-3〉에서 보이듯 고기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층 81.8%, 중층 66.2%, 하층 6.7%로 나타났다. 상층과 중층 간의 격차보다 중층과 하층간의 격차가 훨씬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층의 식생활 실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은 고기를 일 년에 한두 번밖에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2020)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거의 매일 섭취	18.2	10.3	6.7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	63.6	55.9	0.0
한달에 한두 번 섭취	9.1	32.4	53.3
일년에 한두 번 섭취	9.1	1.5	30.0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식생활에 비해 의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층 간 격차가 다소 좁혀진다는 점과 더불어 상층보다 중층에서 의생활의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특징이다. 〈표 2-4〉은 계층별 옷 구입 빈도를 비교한 결과로,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구입’ 응답이 상층 36.4%, 중층

48.5%, 하층 40.0%로 계층 간 격차가 크지 않다. 더욱이 상층보다 중층에서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구입’ 응답에서는 상층 36.4%, 중층 32.4%, 하층 10.0%로 상층과 중층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데 반해 하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가 크다.

〈표 2-4〉 계층별 옷 구입 빈도(2020)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구입	36.4	32.4	10.0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구입	36.4	48.5	40.0
1년에 한두 벌 정도 구입	9.1	19.1	40.0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구입	18.2	0.0	6.7
구매한 적 없음	0.0	0.0	3.3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표 2-5〉은 계층별 살림집 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아파트의 경우 상층 36.4%, 26.5%, 하층 23.3%로 나타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상층과 중층 간의 아파트 비중 격차가 증가하였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두 계층 간의 격차가 2.4%p였다면, 올해 조사에서는 9.9%p로 증가하였다. 아파트 선호의식과 함께 집값 상승으로 인해 향후 아파트의 계층 간 비중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층 36.4%, 중층 42.6%, 하층 50.0%로 나타나 경제적 지위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단독주택의 경우 중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북한에서 주택 유형이 계층 위치를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5〉 계층별 살림집 유형(2020)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아파트	36.4	26.5	23.3
연립주택	36.4	42.6	50.0
단독주택	18.2	26.5	16.7
기타	9.1	4.4	10.0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다음으로 계층별 내구재 보유 현황을 비교해보면 〈표 2-6〉과 같다. TV와 자전거는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 필수 내구재의 성격을 띤다. TV의 경우 상층의 보유율은 100%이고 하층의 보유율도 80%에 이른다. 자전거의 경우 상층 63.6%, 중층 70.6%, 하층 53.3%로 계층 간 격차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크지 않으며 교통운수 부문이 열악한 상황에서 개인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가구의 필수품으로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상층의 자전거 보유율이 중층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상층의 경우는 자전거보다 오토바이로 이동수단의 선호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 오토바이 보유율을 보면 상층 45.5%, 중층 27.9%, 하층 10.0%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내구재 항목에서 반드시 상층의 보유율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냉장

고, 전기밥솥, CD플레이어, 손전화, 자전거 항목에서는 중층의 보유율이 상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국사회의 중산계층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의 중산층은 소비 부문을 주도하는 계층적 특성을 보인다.¹⁷

북한에서도 상층보다 중층의 내구재 보유율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층의 내구재 구매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중산층의 고유한 특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계층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 비교(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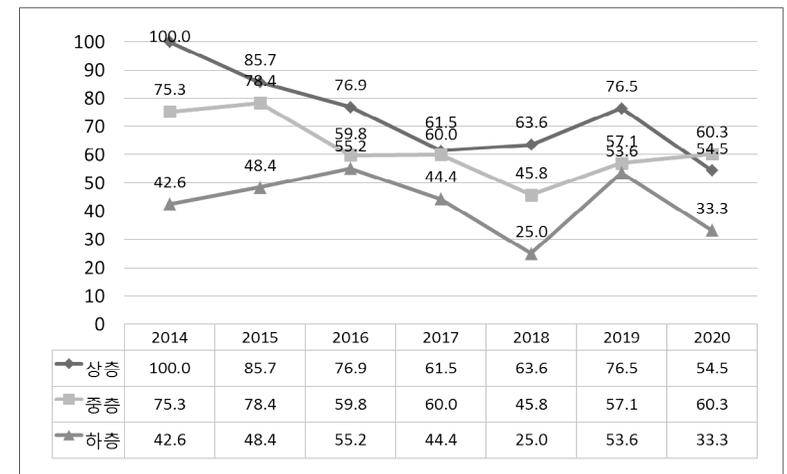
구분	상층	중층	하층
TV	100.0	94.1	80.0
냉장고	36.4	44.1	16.7
전기밥솥	45.4	67.5	46.7
세탁기	27.3	25.0	20.0
CD플레이어	36.4	76.5	40.0
집전화	72.7	69.1	30.0
손전화	63.6	72.1	26.7
컴퓨터	63.6	51.5	23.3
자전거	63.6	70.6	53.3
오토바이	45.5	27.9	10.0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17_서석홍,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전환," 『현대중국연구』 7권 2호(2006), pp. 6-18.

내구재 보유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층별 남한상품 경험도 상층보다 중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 개시 이래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중층의 응답률이 상층의 응답률을 추월하여 상층 54.5%, 중층 60.3%로 나타났다. 상층과 하층의 응답률은 전년대비 모두 크게 감소했으나, 중층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위의 계층별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중층의 소비구매력 상승이 눈에 띈다.

〈그림 2-24〉 계층별 남한 상품 사용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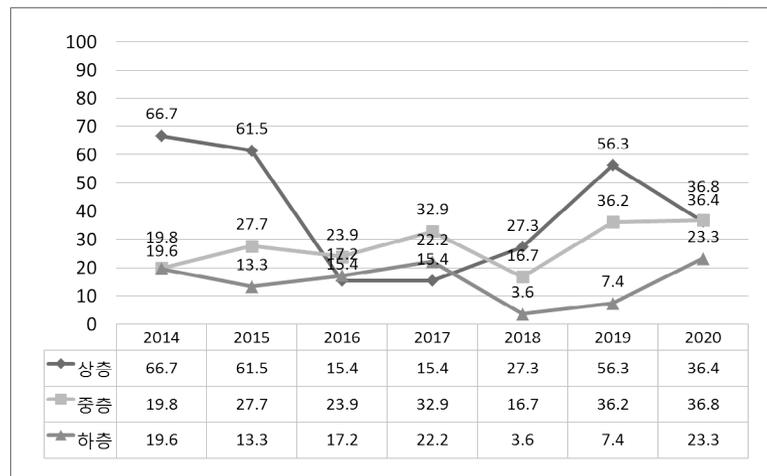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계층별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상층의 사교육 경험 응답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층과 하층의 경우는 사교육 경험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2018년 이후 상층의 사교육 경험 응답률 추이는 등락폭이 커 불안정한 편인데 반해, 중층과

하층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층의 경우 경제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학력과 같은 문화자본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반면에, 중층과 하층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상류층보다 중산층이 교육부문에 쏟는 열의가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에서 나타나는 계층별 사교육 경험의 추이 변화는 오히려 일반 사회의 계층적 특성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25〉 계층별 사교육 경험

(단위: %)



5. 평가와 시사점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북한사회변동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2019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안정적'인 편이라는 종합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년대비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나 그 하락의 폭이나 범위가 위기 상태로 악화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특히, 2019년 북한의 농업생산량 증가 및 대규모 곡물 수입, 시장 곡물가격의 안정, 국산 식료품 생산의 증가 등으로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도 식생활 수준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예측했던 바대로 2019년에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피해로 인해 고기 섭취량이 감소했으나 전염병의 피해 규모에 비해 감소의 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제재, 코로나-19(국경봉쇄), 수해라는 3중고로 인해 상당히 의식주 생활에서의 후퇴가 예상된다. 특히, 식량부족으로 인해 식생활에서의 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시민의 전용 식량생산기지인 황해남도 지역의 수해 피해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감소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평양시민의 식량배급에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비상방역으로 인해 1년 가까이 국경봉쇄가 이뤄지면서 곡물과 식료품의 수입이 제약을 받아 식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 농림부가 발표한 '2020-30 국제 식량안보 평가 (International Food Security, 2020-30)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인

구의 약 59.2%가 식량불안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COVID-19) 쇼크에 의해 식량불안 인구는 59.8%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나마 경공업 부문의 현대화와 국산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국산 소비품의 생산 증가가 2020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의 급격한 하락을 완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조사에서 처음 측정하였던 가구별 태양광 판넬의 높은 보유율(72.5%)은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을 평가하고 변화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개별 가구의 태양광 판넬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 자가 발전(發電) 용량(electric power capacity)이 향상됨에 따라 북한주민의 내구재 보유에 큰 영향을 미쳐 생활 편의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전역에 보급된 태양광 판넬은 대부분 중국산인데, 최근에 북한 당국이 국산 태양광 판넬을 개발하여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자연에너지연구소 등이 자체 태양광 판넬을 개발 중에 있고, 진흥태양광전지공장 등 기업소에서는 외산 중간재를 가공, 조립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¹⁸ 국산 태양광 판넬이 개발되어 보급되면 가정용 전기 공급 문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이동 수단이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도 매우 주목되는 변화이다. 올해 조사에서 가구별 오토바이 보유율은 24.8%로 거의 4가구 중 1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응답자들이 대부분

접경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륙지역 가구의 오토바이 보유율은 훨씬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MICS, 전년도 조사, 그리고 올해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토바이 보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에 비해 오토바이의 보급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훨씬 크다. 오토바이로 인해 근거리 이동 및 물류 속도가 크게 빨라지면서 유통 및 소비 시장은 더욱 발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정보화이다. 정보화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본 조사는 북한의 정보화를 북한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다년간 정보화 실태를 추적하였다. 휴대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중적인 필수품이 되었고, 컴퓨터의 보유는 상층과 중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정보화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는 IT 장치(device)의 생산과 보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네트워크 접근의 제약에 있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인터넷 접속 경험률은 지난 5년 동안 10% 미만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일반주민의 인터넷 접속은 원천 봉쇄된 상태이다.

2020년 12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두 개의 법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은 기로에 서 있는 북한의 현실적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자는 체제수호를 위해, 후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현대 사회

18 김경원, "북한의 발전기 생산 및 사용 현황", 「Weekly KDB Report」,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2020.11.23, p. 8.

에서 이동통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지대하다. 북한도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발전된 이동통신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발달과 정보 유통의 증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의 발전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의 발달에 동반되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차단하고자 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발달한 이동통신의 수단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북한 당국이 경계하는 ‘반동사상문화’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기술통제의 수준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 이종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¹⁹

1. 서론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장화(marketization)일 것이다. 시장화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즉,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분배되던 자원이 점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분배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적 제도를 고수하는 국가 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 기제가 공식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장화는 곧 ‘비공식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면 공식 경제의 물적/인적 자원을

잠식하며 부패를 수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²¹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공공분배시스템이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자생적으로 진행된 시장화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유지 기반이 되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공식 부문은 비공식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계획상의 생산 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된 이후 북한의 기업들은 부족한 중간재를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 계획분을 납품한 후 남는 물량을 시장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관료들 역시 공식 월급(배급)이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과 연계된 각종 뇌물을 수취하여 생활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 정권 역시 시장 활동을 탄압하기보다는 묵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포전담당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일련의 경제적 분권화 조치들을 취하며,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기존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이다. 2012년에서 제재 강화 이전인 2016년까지 북한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4%로 추정되는데,²² 이렇듯 김정은 집권기 들어 느리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율권 확대를 통해 시장 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¹⁹ 본 장의 내용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재직 당시 조사된 것으로, 필자의 현 소속기관과는 무관함.

²⁰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²¹ Choi and Thum (2005) "Corruption and the shadow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6(3), pp. 817-836; Harrison and Kim (2006) "Plans, prices and corruption: The Soviet firm under partial centralization, 1930 to 199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6(1), pp. 1-41; Kim and Song (2008),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s," *Seoul Journal of Economics* 21(2), pp. 361-385.

²² 한국은행,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년호.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식주 생활을 모두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시장을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종사 업종,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소득 및 생활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대부분이 시장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의식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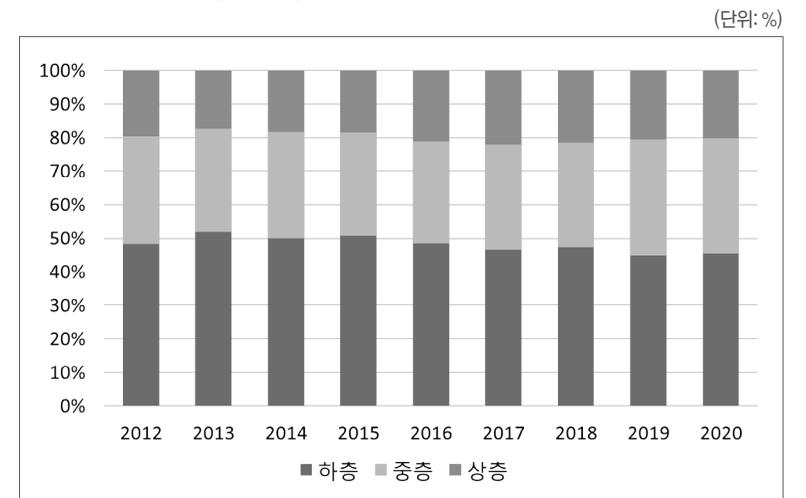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시장화와 관련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0년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 공식/비공식 경제활동, 소득 수준과 계층 인식, 경제활동 여건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북한 경제의 동적 양태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 개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특히 지난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이후 3년 간 북한 경제에 누적된 효과가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올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하겠다.

2. 계층 인식과 소득 분화

1) 계층 인식

계층 인식은 '북한주민의 계층 구성'에 대한 질문과 '본인의 생활수준 계층'에 대한 질문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북한 사회 내의 계층 구성에 대한 응답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북한 사회가 50%의 하층, 30%의 중층, 20%의 상층으로 구성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사회변동 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도 하층 45.4%, 중층 34.4%, 상층 20.2%로 계속해서 유사한 추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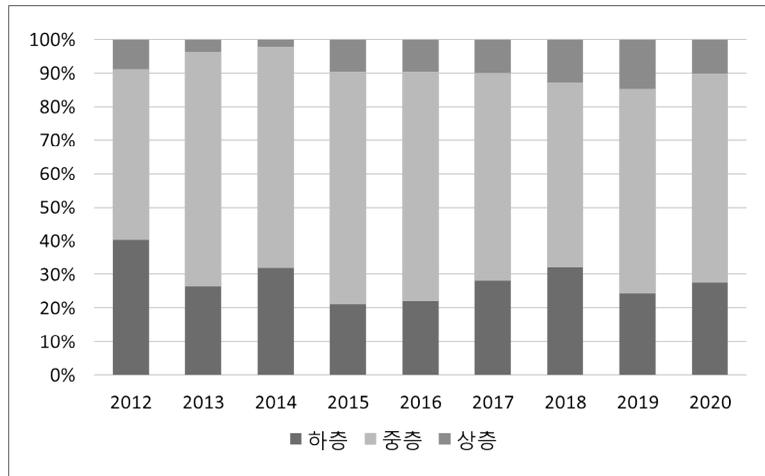
〈그림 3-1〉 북한주민의 사회적 계층인식 비율



한편, 주관적 계층인식에서는 탈북 직전 본인의 생활수준이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 중층이 62.5%, 상층이 10.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상층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하층, 중층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하층, 상층 비율이 낮아지고 중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2〉 북한주민의 주관적 계층인식 비율

(단위: %)



탈북 직전의 계층 인식을 2000년대 초반의 계층에 대한 회고적 인식과 비교해보면 22%가 계층 상승을, 19%가 계층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경우, 계층 하락이 18%로 계층 상승 13%보다 높았다.

〈표 3-1〉 북한주민들의 주관적 계층 변화 인식

(단위: 명)

구분		탈북직전			
		상층	중층	하층	합계
2000년대 초반	상층	4명 (3.7%)	11명 (10.3%)	1명 (0.9%)	16명 (15.0%)
	중층	5명 (4.7%)	39명 (36.4%)	8명 (7.5%)	52명 (48.6%)
	하층	2명 (1.9%)	16명 (15.0%)	21명 (19.6%)	39명 (36.4%)
	합계	11명 (10.3%)	66명 (61.7%)	30명 (37.4%)	
전체 응답자 : 107명					
구분		탈북직전			
		상층	중층	하층	합계
2010년대 초반	상층	8명 (7.4%)	8명 (7.4%)	2명 (1.9%)	18명 (16.7%)
	중층	1명 (0.9%)	48명 (44.4%)	10명 (9.3%)	59명 (54.6%)
	하층	2명 (1.9%)	11명 (10.2%)	18명 (16.7%)	31명 (28.7%)
	합계	11명 (10.2%)	67명 (62.0%)	30명 (37.4%)	
전체 응답자 : 108명					

* 이전과 비교해 탈북 직전 계층이 상승한 경우 밑줄 표시, 하락한 경우 굵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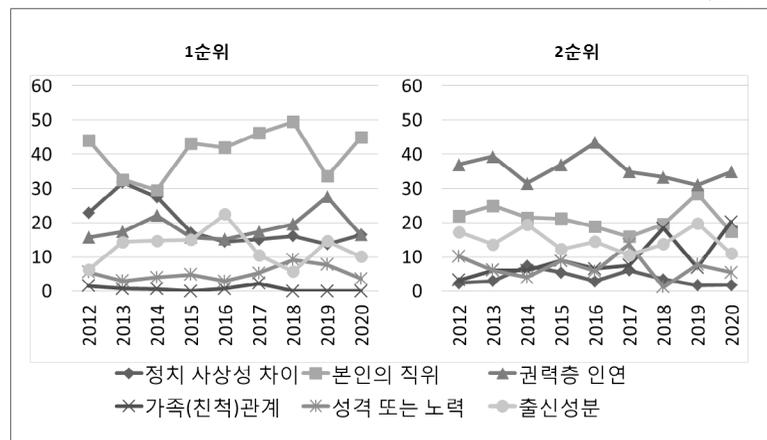
2) 소득 계층 분화

(1) 계층 분화의 이유

이렇게 북한 내 생활수준 계층이 나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 조사에서는 ‘북한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유’를 질문하여 계층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올해 조사에서는 본인의 직위가 45% 권력층과의 인연이 17.4%로 1순위 응답 1,2위를 차지하였다. 2순위 질문에서도 두 항목은 각각 17.4%와 34.9%를 기록하여 상위권을 나타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 소득 계층 분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사회적 지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정치 사상성,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경제적 계층 분화의 이유

(단위: %)



(2) 지역 간 차이

지역별 생활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양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43.9%, 1위로 나타났다. 평안남도는 조사 이래 40% 내외의 응답률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위권은 북-중 접경지역인 평안북도, 함경북도, 양강도가 비슷한 비율을 보여 왔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양강도가 19.6%로 2위, 평안북도가 16.8%로 3위, 함경북도는 5.6%로 5위를 기록하였다. 함경북도가 잘 산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부터는 그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제재 이후 광업 및 금속공업이 침체를 겪음에 따라 해당 산업의 연합기업소들이 다수분포한 함경북도 지역의 경제 사정 악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²³

어려운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왔는데, 올해는 크게 감소하여 양강도와 공동 1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관광 유치로 목적으로 갈마지구 등 강원도 지역 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한 것이 설문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양강도는 어려운 지역 공동 1위, 부유한 지역 2위로 꺾혀 양면적인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조사의 표본에 양강도 출신 비중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_ 이것은 본 조사 표본의 구성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어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조사연도별로 표본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함경북도 출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15~20%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면, 부유한 지역 또는 어려운 지역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지역으로 응답할 개연성이 높다. 즉, 함경북도 출신 피조사자 비율이 감소하면서, 문항에서 함경북도를 응답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을 수 있다.

〈표 3-2〉 북한 거주 당시 잘 사는 지역 응답 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2012	평안남도 38.4%	함경북도 28.6%	평안북도 12.5%	함경남도 7.1%	양강도 7.1%	자강도 5.4%
2013	평안남도 40.9%	함경북도 23.5%	양강도 15.2%	자강도 7.6%	평안북도 6.8%	함경남도 3.8%
2014	평안남도 31.8%	평안북도 21.6%	함경북도 19.6%	양강도 19.6%	자강도 4.1%	황해남도 2.0%
2015	평안남도 31.2%	평안북도 24.1%	함경북도 18.4%	양강도 18.4%	자강도 2.1%	황해남도 2.1%
2016	평안남도 38.8%	평안북도 17.2%	양강도 17.2%	함경북도 15.7%	함경남도 6.0%	자강도 4.5%
2017	평안남도 37.0%	양강도 17.3%	함경북도 16.5%	평안북도 14.2%	자강도 9.4%	함경남도 3.1%
2018	평안남도 55.2%	평안북도 13.8%	양강도 10.3%	함경북도 8.0%	함경남도 5.7%	자강도 3.4%
2019	평안남도 46.9%	양강도 18.6%	평안북도 14.2%	함경북도 5.3%	함경남도 5.3%	자강도 5.3%
2020	평안남도 43.9%	양강도 19.6%	평안북도 16.8%	자강도 7.5%	함경북도 5.6%	함경남도 4.7%

〈표 3-3〉 북한 거주 당시 못 사는 지역 응답 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2012	강원도 40.0%	함경남도 13.0%	황해남도 11.3%	함경북도 10.4%	자강도 8.7%	양강도 7.0%
2013	강원도 43.5%	자강도 14.5%	황해남도 13.0%	함경남도 9.2%	양강도 9.2%	황해북도 6.9%
2014	강원도 35.4%	자강도 13.9%	양강도 11.1%	황해남도 10.4%	함경남도 10.4%	황해북도 10.4%

2015	강원도 29.1%	황해남도 21.3%	황해북도 15.6%	자강도 14.9%	양강도 8.5%	함경남도 5.7%
2016	강원도 47.4%	황해남도 14.3%	자강도 11.3%	양강도 6.8%	황해북도 6.0%	함경남도 5.3%
2017	강원도 38.2%	황해북도 13.0%	황해남도 12.2%	자강도 12.2%	양강도 11.5%	함경남도 6.1%
2018	강원도 41.9%	양강도 19.8%	황해남도 14.0%	자강도 7.0%	황해북도 5.8%	함경북도 5.8%
2019	강원도 41.4%	양강도 25.9%	자강도 12.1%	황해남도 6.9%	함경북도 5.2%	함경남도 4.3%
2020	강원도 24.3%	양강도 24.3%	자강도 15.9%	황해북도 11.2%	황해남도 10.3%	함경남도 3.8%

(3) 직업 간 차이

직업별 인식에서는 잘 사는 직업과 못 사는 직업을 두 개씩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단, 본 설문은 직업 구분은 ‘업종’ 보다는 ‘직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잘 사는 직업으로는 권력기관에 가까우며 뇌물을 수취하기에 유리한 중앙당 간부, 법기관 간부가 높은 응답을 받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중앙당 간부가 1.2 순위 합계 83.5%, 법기관 간부가 67.0%로 1,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일반 주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군은 대체로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다. 올해 조사 역시 못 사는 직업으로 농장원(86.2%)-기업소노동자(53.2%)-농장관리일꾼(23.9%)가 꼽혔다. 직업별 생활수준 인식에서는 조사 이래 주목할 만한 순위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4〉 북한 거주 당시 잘 사는 직업 응답 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3	중앙당 간부 93.2%	법기관 간부 64.4%	외화벌이 16.7%	지방당 간부 12.9%	장사 3.8%
2014	중앙당 간부 81.2%	법기관 간부 65.1%	외화벌이 22.8%	지방당 간부 19.5%	장사 3.4%
2015	중앙당 간부 87.7%	법기관 간부 61.0%	외화벌이 19.2%	지방당 간부 17.8%	장사 7.5%
2016	중앙당 간부 88.4%	법기관 간부 70.3%	외화벌이 21.0%	지방당 간부 12.3%	장사 5.1%
2017	중앙당 간부 85.6%	법기관 간부 65.9%	외화벌이 20.5%	지방당 간부 15.9%	장사 4.5%
2018	중앙당 간부 85.1%	법기관 간부 59.8%	외화벌이 21.8%	지방당 간부 19.5%	장사 3.4%
2019	중앙당 간부 93.1%	법기관 간부 56.9%	외화벌이 22.4%	지방당 간부 13.8%	장사 7.8%
2020	중앙당 간부 83.5%	법기관 간부 67.0%	외화벌이 24.8%	지방당 간부 9.2%	장사 5.5%

*1,2순위 합계

〈표 3-5〉 북한 거주 당시 못 사는 직업 응답 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3	농장원 90.2%	기업소노동자 59.1%	농장관리일꾼 15.2%	군관 12.1%	전문직 6.8%
2014	농장원 85.2%	기업소노동자 52.3%	군관 13.4%	농장관리일꾼 13.4%	전문직 11.4%
2015	농장원 92.5%	기업소노동자 58.9%	군관 17.8%	농장관리일꾼 13.0%	전문직 5.5%
2016	농장원 88.4%	기업소노동자 57.2%	군관 17.4%	농장관리일꾼 13.0%	전문직 6.5%

2017	농장원 93.2%	기업소노동자 65.9%	군관 9.8%	농장관리일꾼 9.1%	전문직 6.1%
2018	농장원 87.4%	기업소노동자 64.4%	농장관리일꾼 12.6%	군관 10.3%	전문직 9.2%
2019	농장원 87.1%	기업소노동자 60.3%	군관 19.8%	농장관리일꾼 9.5%	인민위 간부 5.2%
2020	농장원 86.2%	기업소노동자 53.2%	농장관리일꾼 23.9%	군관 8.3%	장사 7.3%

*1,2순위 합계

3.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 활동

1)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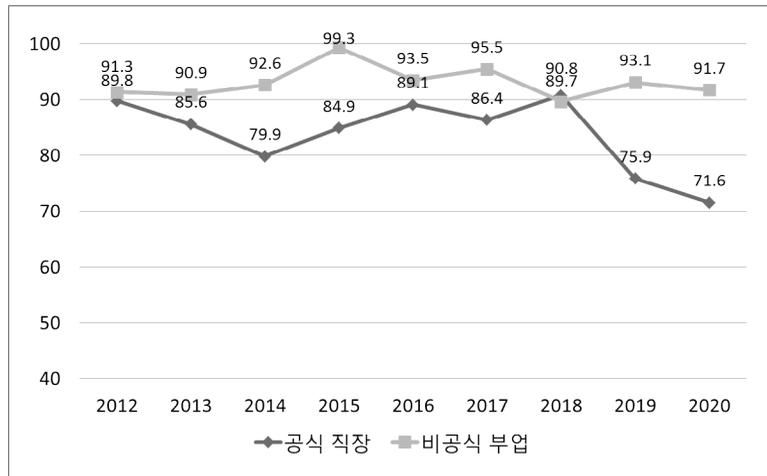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중 일을 하고 있거나(취업자) 취업의 의사가 있는 사람(실업자)을 합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 계획에 의해 할당되는 공식 직장 활동과 생계를 위한 비공식 경제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가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올해 조사에서 북한 거주 당시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6%로 조사되어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²⁴ 2018년 조사에서 90.8%를 나타낸 뒤, 2019년

²⁴ 원 질문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장사나 더벌이를 했고), 그로부터 벌어들인 생활비의 총합은 얼마나 되었느냐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해당 질문에 0명이라고 대답한 비율을 사용하여 북한 가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계산하였다.

75.9%, 2020년 71.6%로 2년 연속 크게 하락한 결과이다. 이는 대북제재 강화의 여파로 공식 기업소의 중간재 수급, 설비 관리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비공식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부업이나 더벌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7%로 나타났다. 조사 이래 비공식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 가계가 공식경제활동 보다는 비공식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북한 가계의 공식/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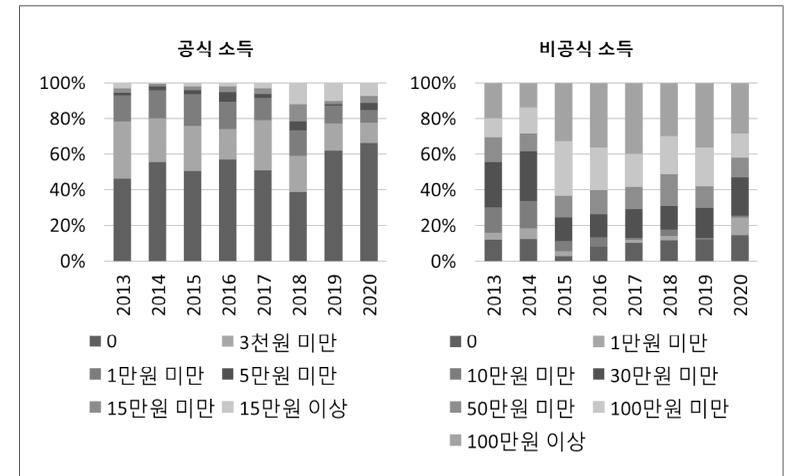


소득 분포 조사에서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사에서 공식 월급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비공식 소득의 분포 역시 작년 대비 하방 이동하였다. 2018년 조사를 제외하면, 북한 가계는 대부분 월 3000원 미만의

공식 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비공식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 소득 없음' 응답의 증가는 공식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비공식 소득이다. 비공식 소득 분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계가 53%에서 39%로 감소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소득 가계도 34%에서 27%로 감소하였다. 이에 북한 가계의 비공식 소득 중간값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만원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림 3-5〉 북한 가계의 공식/비공식 소득 구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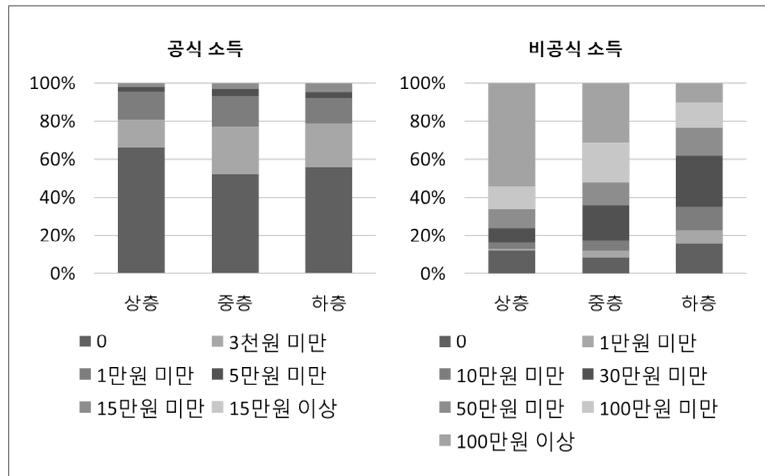


북한의 소득 분포를 계층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공식 소득 분포는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비공식 소득은 계층 간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 본인을 '상층'이라고 응답한 주민들의 55%가 비공식 소득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층'이라고

응답한 주민들 중 30%, '하층'이라고 응답한 주민들 중 10% 만이 월 100만원 이상의 비공식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 가계의 계층 분화는 대부분 비공식 소득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6〉 북한 가계의 계층별 소득분포

(단위: %)



2) 주 소득 업종

재북 당시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둔 업종은 소매장사(19.3%)와 되거리장사(10.1%), 외화벌이(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외화벌이, 밀수 등 대외무역 관련 돈벌이는 2015~2017년 조사에서 비중이 높아졌다가 2018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

하는 추세이다.

〈표 3-6〉 주 소득 업종 응답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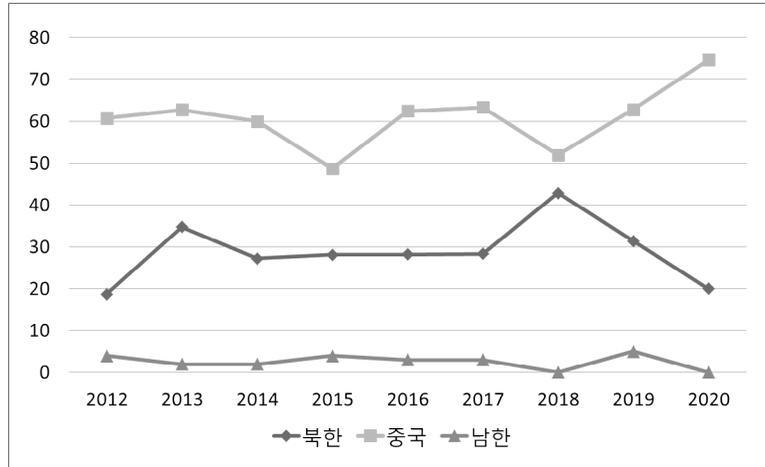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	소매장사 31.5%	되거리장사 15.7%	삿벌이 7.9%	외화벌이 6.3%	개인 서비스업 5.5%
2015	소매장사 24.0%	외화벌이 13.7%	되거리장사 11.6%	밀수 7.5%	돈장사 6.8%
2016	되거리장사 22.3%	소매장사 21.5%	밀수 13.2%	외화벌이 8.3%	삿벌이 6.6%
2017	밀수 16.7%	소매장사 14.2%	되거리장사 11.7%	외화벌이 10.8%	삿벌이 7.5%
2018	삿벌이 19.0%	소매장사 11.4%	밀수 8.9%	외화벌이 8.9%	되거리장사 7.6%
2019	소매장사 19.0%	되거리장사 18.1%	외화벌이 11.2%	삿벌이 4.3%	돈장사 4.3%
2020	소매장사 19.3%	되거리장사 10.1%	외화벌이 10.1%	밀수 9.2%	삿벌이 5.5%

이러한 돈벌이를 위해 구입한 원자재는 중국산인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다. 기존 조사에서 중국산과 북한산은 대체로 60%:30% 비율을 유지하였는데, 올해 조사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산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그림 3-7〉 주 소득 업종의 원자재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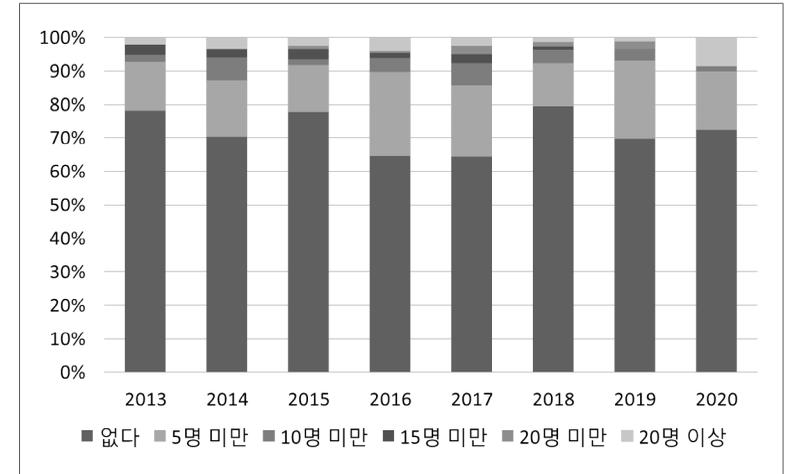
(단위: %)



위 사업을 수행할 당시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20명 이상 대규모 고용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로 예년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사업 규모 면에서 양극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 주 소득 업종의 고용 경험

(단위: %)



3) 경제활동의 제반 여건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사 이래 ‘법기관의 단속과 뇌물 고이는 일’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왔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밀착 마련’이 52.4%로 ‘단속이나 뇌물’(46.4%)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원자재 및 상품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35.7%)도 작년대비 22%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이는 누적된 대북제재의 효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주 소득 업종 수행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	단속, 뇌물 56.0%	사업밀천마련 36.8%	전기 사정 22.4%	도로, 철도사정 21.6%	원자재, 상품확보 19.2%
2015	단속, 뇌물 62.3%	사업밀천마련 30.8%	원자재, 상품확보 20.5%	도로, 철도사정 19.2%	전기 사정 15.1%
2016	단속, 뇌물 68.5%	사업밀천마련 44.8%	원자재, 상품확보 20.9%	도로, 철도사정 16.8%	전기 사정 15.0%
2017	단속, 뇌물 69.2%	사업밀천마련 34.2%	전기 사정 25.0%	원자재, 상품확보 23.3%	도로, 철도사정 10.8%
2018	단속, 뇌물 57.7%	사업밀천마련 39.7%	전기 사정 26.9%	원자재, 상품확보 23.1%	도로, 철도사정 20.5%
2019	단속, 뇌물 67.4%	사업밀천마련 49.4%	수완부족 15.7%	동종업계경쟁 15.7%	전기 사정 14.6%
2020	사업밀천마련 52.4%	단속, 뇌물 46.4%	원자재, 상품확보 35.7%	수완부족 23.8%	전기 사정 11.9%

* 1,2순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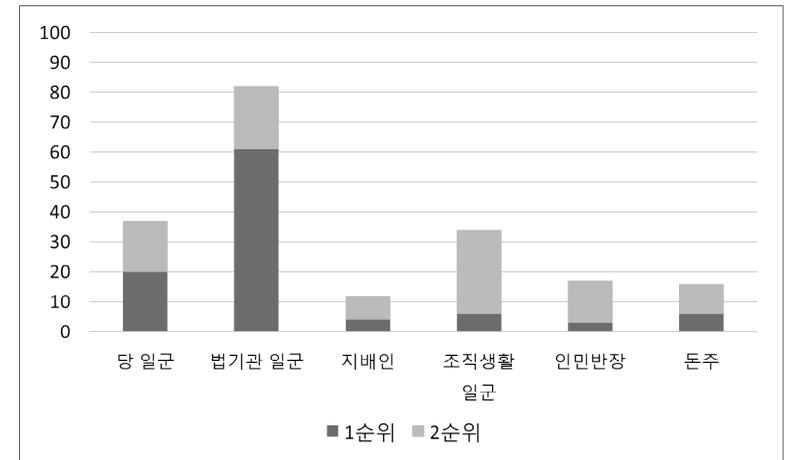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설문에서 법기관 일군이 1,2순위 합계 8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아무래도 비공식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수반되는 뇌물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뇌물은 매우 일상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중 면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⁵ 2012년 이후 본 조사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북한 가계의 소득 대비 뇌물 지출 비중은 평균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²⁵ 김병연·양문수(2012)는 가계 지출의 평균 10% 가량이 뇌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수치를 국민소득에 대한 비중으로 환산하면 소련 고르바초프 시기에 비해 북한의 뇌물 비중이 3~4배 정도 높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근에는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증가하여 20%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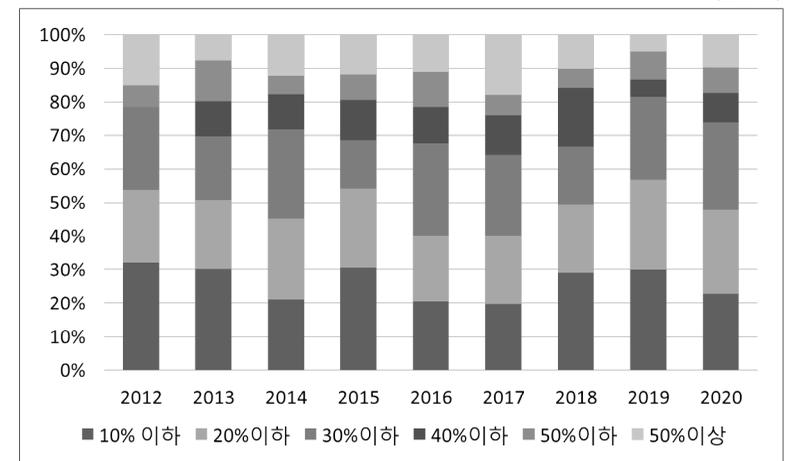
〈그림 3-9〉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그림 3-10〉 북한 가계 소득 대비 뇌물 지출 비중 추이

(단위: %)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시장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발달은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소속 공동체의 역할을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대체하며, 이에 따라 집단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주의를 확산시킨다.²⁶ 북한주민들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경험하면서 경쟁, 경제적 자유, 익명의 상대에 대한 신뢰 등 자본주의적 사회 규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수 있다. 이는 현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개혁에의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본 조사에서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의견, 경제 체제에 대한 선호,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 등을 설문하여, 북한 주민들의 이와 같은 의식 변화에 대해 추적하고자 한다.

1) 경제 활동 자유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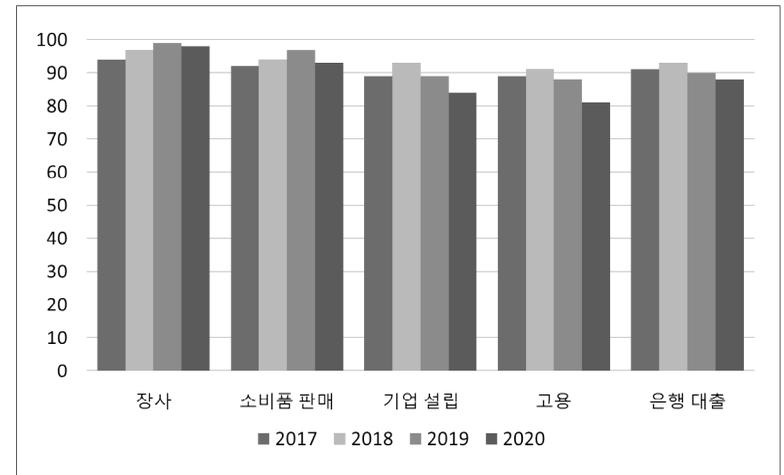
2017년부터 본 조사에서는 ‘장사의 자유’, ‘생산 및 판매의 자유’, ‘기업 설립의 자유’, ‘고용의 자유’, ‘금융 거래의 자유’ 다섯 가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하고 있다.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 활동의 자유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찬성

26_Triandis, H. Charalambos,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의견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3-11〉 분야별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이 5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로²⁷. 모두 합산하면, 각 응답자의 ‘경제적 자유 선호 정도’를 20점 만점의 통합된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석 결과,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자유 선호 점수는 평균 17.7점, 중간값 20점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이 20점이라는 것은 5가지 문항 모두에 대해 ‘매우 찬성’으로 응답한 피설문자가 절반 이상이었음을 의미한다.

27_‘매우 반대’: 1점, ‘약간 반대’: 2점, ‘약간 찬성’: 3점, ‘매우 찬성’: 4점.

〈표 3-8〉 경제적 자유 선호 점수 추이

(단위: 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평균	18.3	18.5	18.4	17.7
중간값	20.0	19.0	2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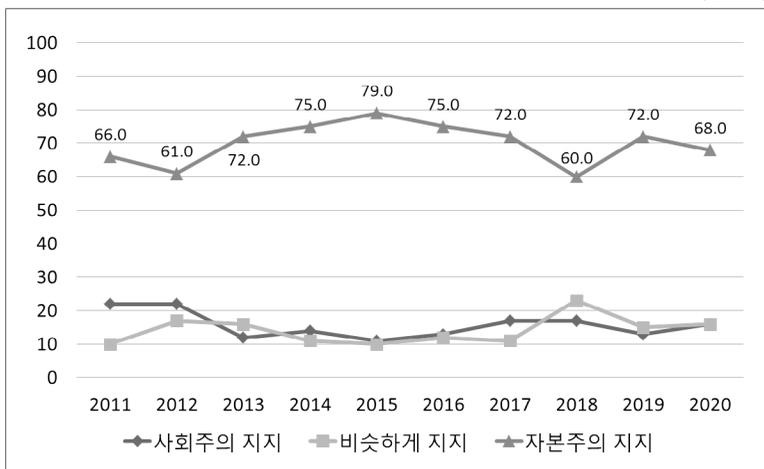
*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찬성 정도를 5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4점척도로 측정하여 모두 합산한 값. 20점 만점

2) 경제 체제 선호도

“재북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 쪽을 지지하였나”는 질문에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였다는 응답이 60~80% 정도로 조사되어 왔다. 이 추세는 이번 설문에서도 계속되어 응답자 중 67.9%가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였다고 답한 반면, 사회주의를 더 지지하였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그림 3-12〉 재북 당시 경제 체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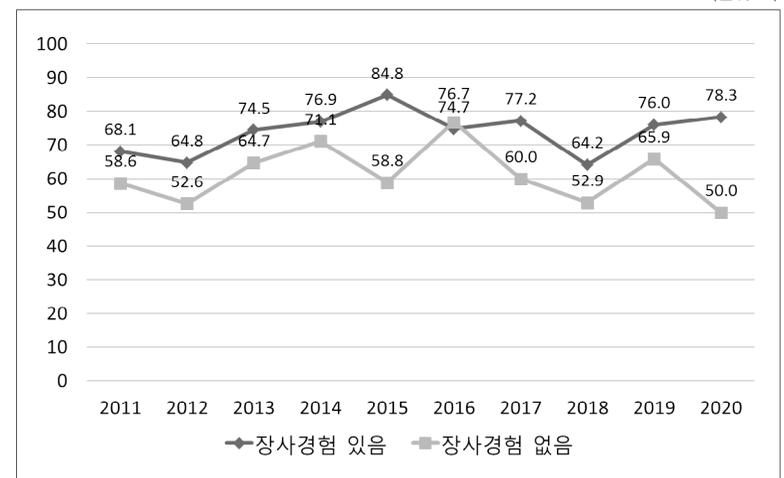
(단위: %)



이러한 체제 선호도에는 북한에서의 시장 활동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거주 당시 장사 활동 유무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본 결과, 장사를 해 본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장사 경험이 있는 경우 자본주의 지지도가 78.3%인 반면 장사 경험이 없는 경우 50.0%로 그 차이가 28.3% 포인트에 달한다.

〈그림 3-13〉 장사 경험 유무에 따른 자본주의 지지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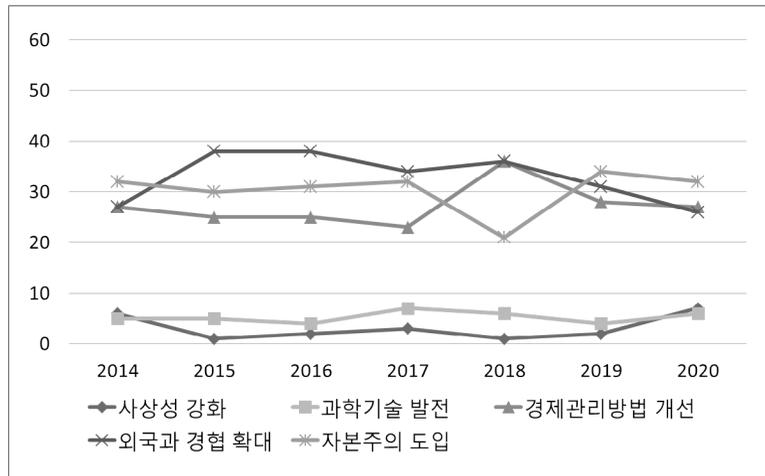


3)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과의 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6.6%, 25.7%로 뒤를 이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북한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 제도적 개혁 또는 대외 개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3-14〉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단위: %)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등이 꾸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고지도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의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미진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표 3-9〉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3	최고지도자 때문 23.5%	개혁개방 X 22.0%	과도한 군사비 지출 21.2%	국가 정책 실패 14.4%	미국의 경제 제재 6.1%
2014	최고지도자 때문 28.9%	과도한 군사비 지출 24.2%	개혁개방 X 18.1%	미국의 경제 제재 8.1%	국가 정책 실패 7.4%
2015	개혁개방 X 26.0%	과도한 군사비 지출 25.3%	최고지도자 때문 19.2%	국가 정책 실패 14.4%	간부들의 관료주의 5.5%
2016	과도한 군사비 지출 34.8%	최고지도자 때문 21.0%	개혁개방 X 20.3%	국가 정책 실패 7.2%	미국의 경제제재 7.2%
2017	과도한 군사비 지출 26.5%	최고지도자 때문 22.7%	개혁개방 X 19.7%	국가 정책 실패 11.4%	미국의 경제제재 6.8%
2018	과도한 군사비 지출 34.5%	개혁개방 X 19.5%	최고지도자 때문 9.2%	미국의 경제 제재 9.2%	간부들의 관료주의 9.2%
2019	과도한 군사비 지출 31.0%	개혁개방 X 21.6%	최고지도자 때문 13.8%	미국의 경제 제재 7.8%	국가 정책 실패 6.9%
2020	과도한 군사비 지출 24.8%	개혁개방 X 23.9%	최고지도자 때문 16.5%	미국의 경제 제재 11.9%	국가 정책 실패 8.3%

5. 평가와 시사점

본 장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대북제재 강화 이후 지난 3년 간 누적된 효과가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식 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가계의 비율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공식 월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계가 2/3에 달하는 등, 공식 부문에 나타난 영향이 두드러진다. 물론, 비공식 부문에서도 평균 소득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사업 수행 시 단속이나 뇌물을 고이는 일보다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나타나는 등 제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이 포착된다.

둘째, 북한 내의 소득 계층 분화는 대부분 비공식 경제활동에 기반하며, 계층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지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계층에 따라 공식 소득은 차이가 없었으나, 비공식 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계층 간 차이를 야기하는 데에는 본인의 직위 또는 권력층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직업적으로도 당 간부, 법 기관 간부가 잘 사는 직업으로 꼽혀 사회적인 지위가 경제적인 부로 연결되는 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경제 체제 및 제도의 개혁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거래, 생산, 금융 등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고,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혁 및 대외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경제 체제에 대한 비교에서도 사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를 더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의식 변화는 비공식 시장 활동(장사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인식 변화의 추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은 북한에게 매우 힘겨운 한 해였다.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셀프 봉쇄를 실시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존 대북제재 하에서도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 소비재는 계속 수입되었으나 2020년,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수입이 전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속적인 수해를 겪으면서 작황 사정 또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북한 식량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만약 2020년 이후 탈북한 주민들에 대한 설문이 가능하다면 향후 북한사회변동 조사에는 이와 같은 경제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정권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정면돌파전'을 강조해 왔으며, 8차 당대회를 앞둔 2020년 연말에는 '80일 전투'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구호를 넘어 객관적인 상황 악화를 딛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 또한 향후 북한 정권의 활동을 제약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제4장
보건 의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보건 의료

| 이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객원교수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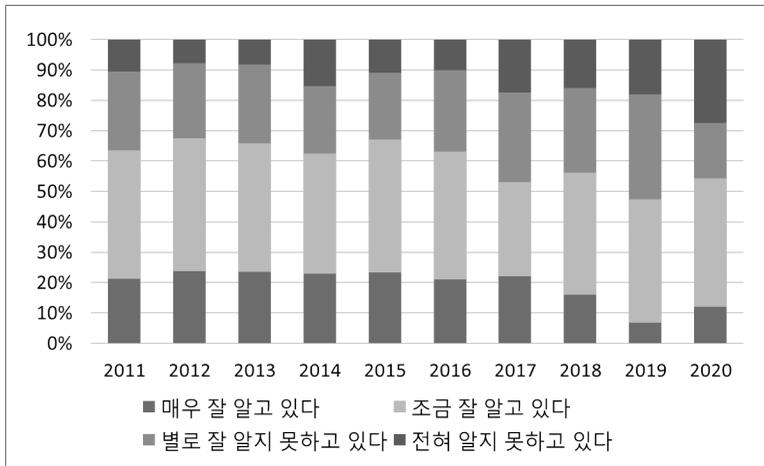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1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보인다고 추계하였다. 북한의 식량소비지수 중 '악화' 단계는 2013년 34%에서 2019년 46%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년 식량수입과 원조 규모는 2016년에 비해 2.7배 증가하였다. 북한의 경제지표, 식량안보지표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다. 북한이 UN의 인도적 통합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2004년 이후 대북지원의 전체 규모 및 인도적 지원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더욱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해외유입의 규모가 증가한 것을 본다면 북한의 식량부족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2.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생각

북한 식량부족의 절대적 규모는 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식량원조의 규모 또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외부의 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체감 정도와 인식도는 어떠한지 간단히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한 자료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잘 알고 있다'의 긍정적 답변은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원의 혜택을 직접 받았거나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외부에서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대북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답변자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대상자 중 다수가 함경북도에 거주했다는 사실과 지역적 분포에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일반화는 어려울 것이나, 외부 지원의 혜택을 받은 지역 또는 대상자가 감소한 결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실제 외부의 지원 감소와 그로 인한 북한주민의 수혜지역 감소가 있었기에 하단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림 4-1〉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대북지원 인지도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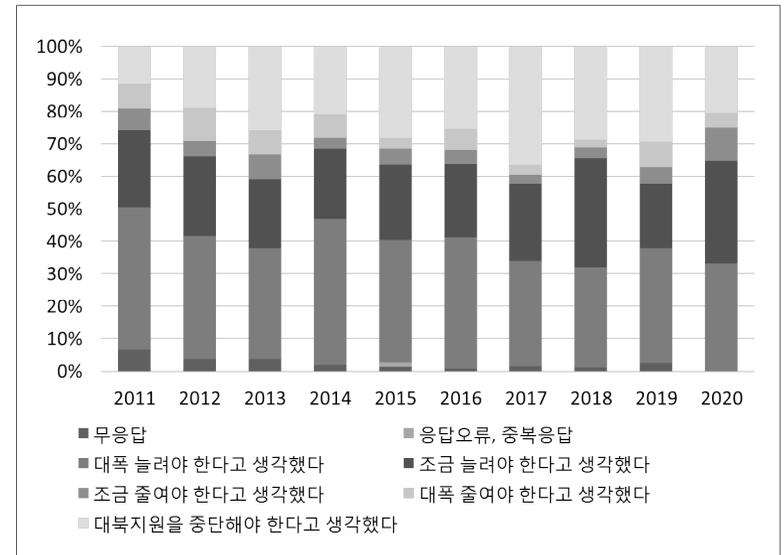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잘 알고 있다 3)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순서로 그래프 하단부터 상단으로 배열됨

대북지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조사했을 때, 2011년 이후 '조금 또는 대폭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의 비율이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60%에 해당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북한주민의 실제 수요 외에도 많은 영향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북한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4-2〉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지원의 규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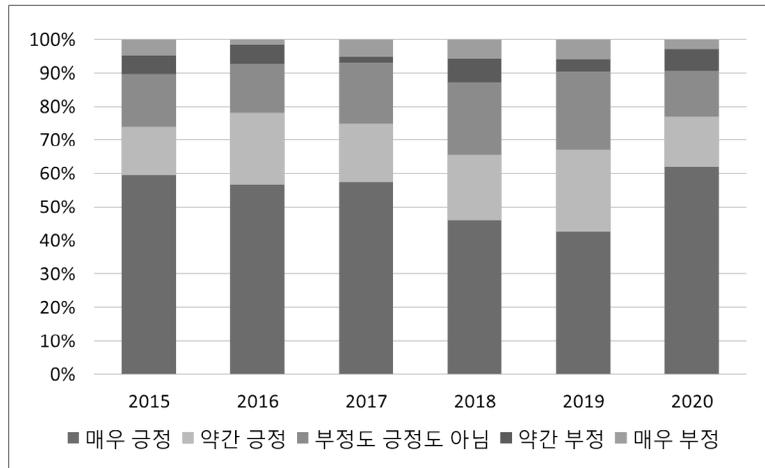
(단위: %)



* 1) 무응답 2) 응답오류 3)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4)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5)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6)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7)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서로 그래프 하단부터 배열됨

〈그림 4-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대북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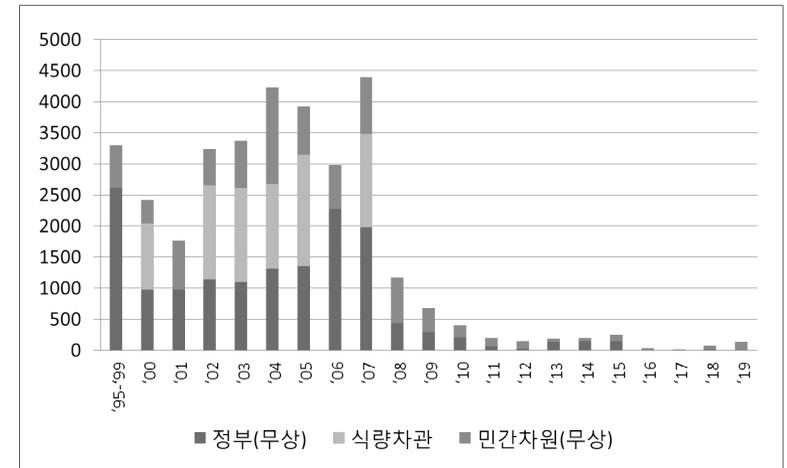


* 1) 매우 긍정 2) 약간 긍정 3) 약간 부정 4) 매우 부정 순서로 그래프 하단부터 배열됨

특히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긍정’이나 ‘약간 긍정’을 답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70%를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의 예외영역인 인도적 지원 영역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은 정치적 영향을 여과 없이 받으며 정권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함께 대북지원은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제3기구를 통한 최소한의 지원만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현재 감소된 대북지원의 규모는 회복되지 못한 채 전 정부의 수준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4〉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지원의 경향

(단위: 억 원)



* 출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외2 (2020) 북한보건의료 백서 2019년 개정판

* 1) 정부(무상) 2) 식량차관 3) 민간차원(무상) 순서로 그래프 하단부터 배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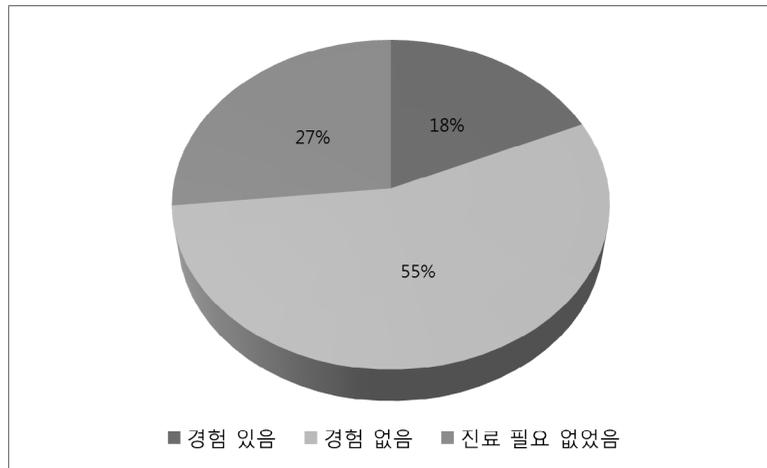
3. 의료기관의 이용 실태 및 접근성 장애요인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19년과 유사하게 18%의 비율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20대 30대의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답변자도 26%로 높았다. 여기서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자에서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았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했음에도 사람들 중에 어떠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하게 되며 25%로 수치가 증가한다. 4명 중 한명은 진료가 필요함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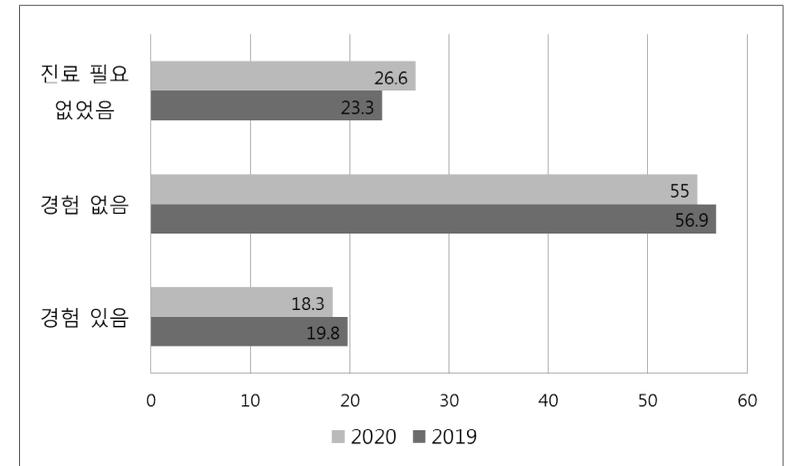
〈그림 4-5〉 의료서비스 필요시 진료 받지 못한 경험(2020)

(단위: %)



〈그림 4-6〉 의료서비스 필요시 진료 받지 못한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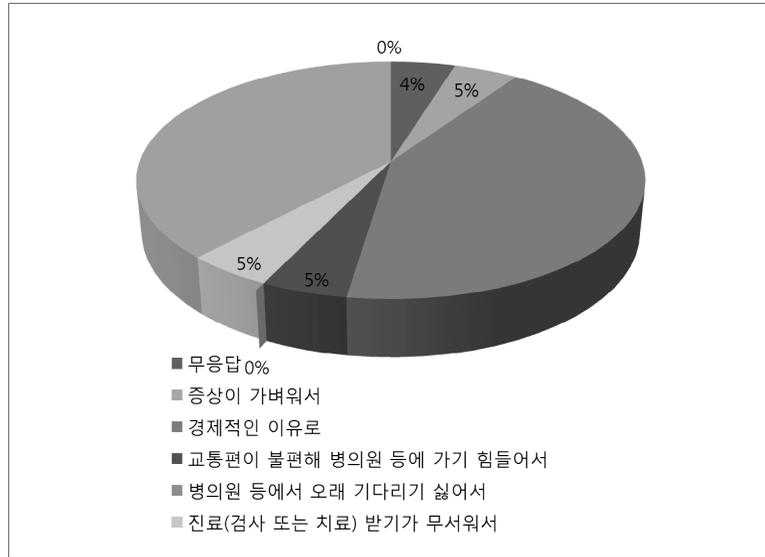
진료를 받지 못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가지의 항목 중 택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병원요인 4가지 그리고 환자요인 3가지로 구분하였다.

병원요인 4가지로는 ‘(1) 지리적 접근성 : 교통편이 불편해 병의원 등에 가기 힘들어서’, ‘(2) 병원의 여건 :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3) 의료장비 및 물품 부족 :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4) 의료인력 부족 :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로 구분되었다.

환자요인 3가지로는 ‘(1) 경제적 요인 : 경제적인 이유로’, ‘(2) 질병관 및 질병행태 : 증상이 가벼워서’, ‘(3) 질병관 및 질병행태 :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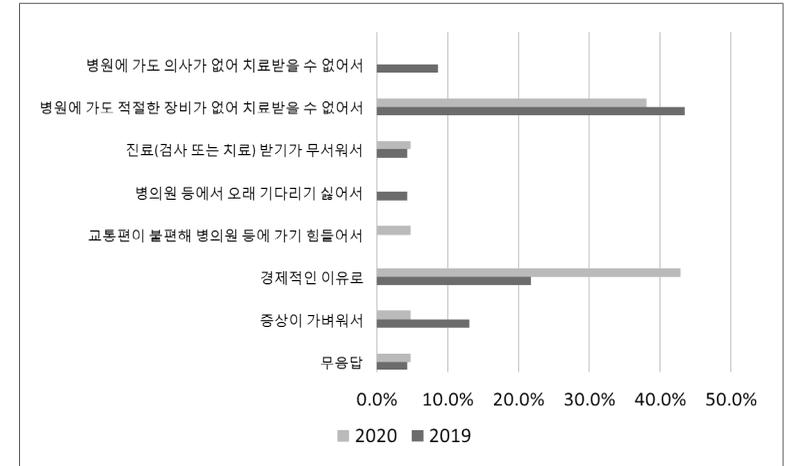
〈그림 4-7〉 의료접근성 장애요인(2020)

(단위: %)



〈그림 4-8〉 의료접근성 장애요인

(단위: %)



이 중 2020년 의료접근성 장애요인의 가장 큰 이유로 21명 중 9명에 해당하는 43%가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했고, 2위는 병원의 장비 및 물품이 부족한 이유로 38%에 해당하는 7명이 선택하였다. 실제 답변자의 수에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의료접근성 장애요인으로 환자요인이 병원요인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의료접근성 장애요인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는 병원요인 중 병원의 장비 또는 물품이 부족하여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43.5%로 23명 중 10명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환자요인 중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42.9%로 21명 중 9명이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요인으로 선택되었다. 2019년도에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22%로 23명 중 5명이었다. 답변자의 전체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분명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환자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의 두 번째로 중요한 장애요인은 병원의 장비 및 물품 부족이었다. 병원의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 요인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 북한의료기관의 실태

(단위: 명, %)

구분	리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1 (1.1)	0 (0.0)	5 (5.7)	3 (2.0)	5 (5.7)	5 (4.0)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2.3)	6 (5.0)	3 (3.4)	13 (11.0)	4 (4.6)	12 (10.0)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2.6)	10 (8.0)	17 (19.5)	16 (13.0)	10 (11.5)	11 (9.0)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2.2)	33 (28.0)	30 (34.5)	28 (24.0)	9 (10.3)	16 (13.0)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49.4)	64 (55.0)	32 (36.8)	52 (45.0)	56 (64.4)	68 (59.0)
계	87 (100.0)	115 (100.0)	87 (100.0)	115 (100.0)	87 (100.0)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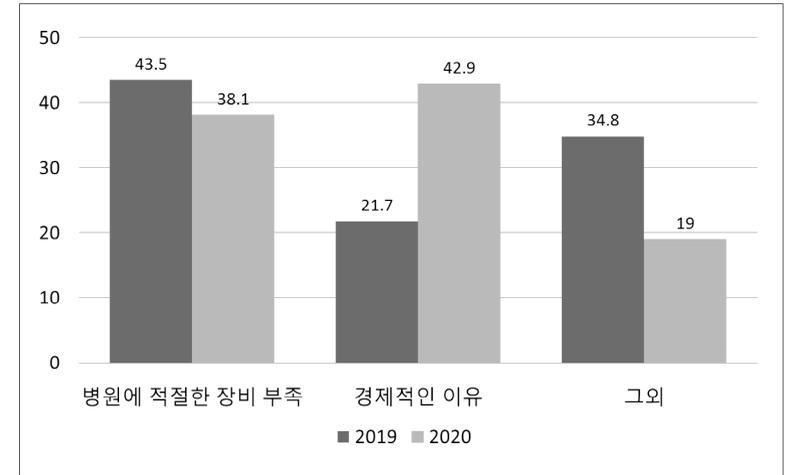
* 출처: 북한사회변동: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2019년

북한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물품, 의료진 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8년과 2019년까지 조사되었다. 리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의료진, 약품, 기기가 모두 충분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2019년의 경우 0명 이었다. 의료이용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자들의 가장 많은 수가 리, 시군구역, 도 인민병원 모두 '의료진, 약품, 기기 모두 부족했다'라고 답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모두 부족했다'와 '의료진 외 기기 및 약품이 부족했다'의 답변은 대부분 감소하였고, '

약품은 아니어도 의료진과 기기는 충분했다'라는 답변은 리, 시군구역, 도 인민병원 각각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조금씩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은 어느 단계의 병원이든, 18년이나 19년 모두 예외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의료진이나 기기 면에서 병원의 여건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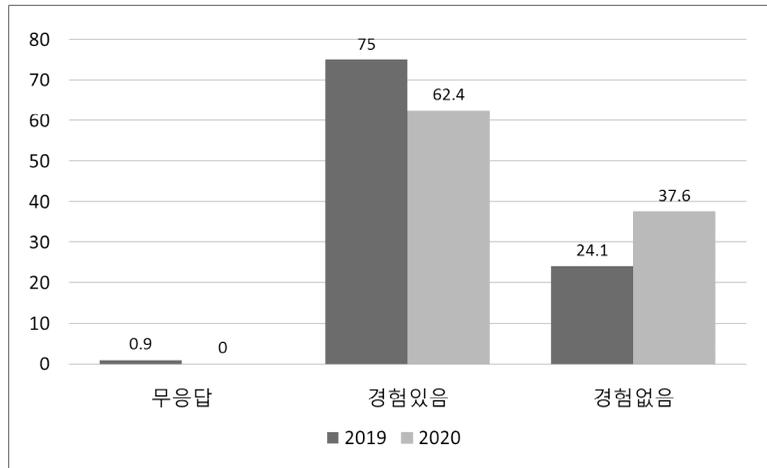
〈그림 4-9〉 의료이용 필요시 진료거절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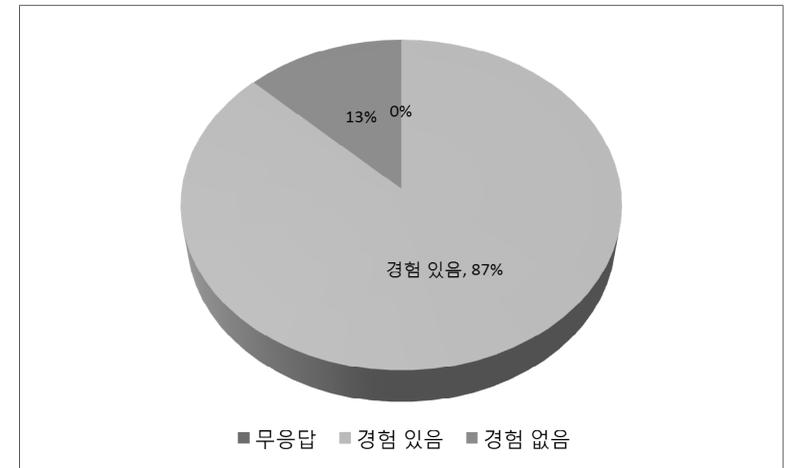
〈그림 4-10〉 북한에서 자가치료 경험

(단위: %)



〈그림 4-11〉 장마당 또는 개인약국 이용경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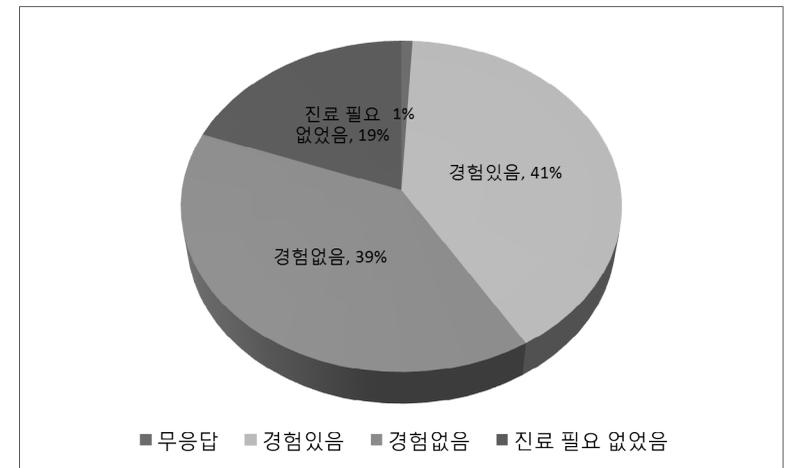
(단위: %)



2020년의 답변을 보면 2019년과 비교하여 의료진이나 병원에서의 진료 없이 자가치료를 하였다는 경험자는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병원의 여건이 개선되지는 못 했어도 악화 또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그러나 환자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증가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의 요인과 환자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중요성을 판단해 본다면, 환자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이 병원 이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12〉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 사용 경험(2020)

(단위: %)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을 때 진료비 명목으로 뒷돈을 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였다. 답변자 중 진료에 필요시 않았던 사람은 19%에 달한다.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뒷돈을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다시 계산해 보면 51%에 해당한다. 절반의 사람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 약품이 부족한 것은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므로 개인적으로 약을 병원 이외의 곳에서 구입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답변자의 87%에 달했다. 나머지 13%에는 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포함된 비율이므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약을 사 먹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질환이 있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은 진료를 받을 때 그리고 약품을 구입할 때 모두 지출이 생기게 된다. 환자의 경제적 여건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자료들이다

4. 북한의료의 시장화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장애의 환자요인 부각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경제지표와 낮은 점수의 식량 안보 지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쌀 가격이나 환율이 201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종합시장’ 정책을 펼치며 2018년까지 500개 이상의 종합시장을 형성하였고, 경공업의 국산화 정

책과 함께 북한 국내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실제 북한산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높여왔다. 시장이 생기고 물품 생산과 공급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상업은행까지 정착하는 금융환경이 형성되었다. 최근 10년간 북한은 내수를 형성하고 시장화를 안착시켜왔다. 공식적 영역에서 시장화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형성된 자본의 사유화는 비공식적 경제 속에서 북한의 신흥자본가인 ‘돈주’들이 등장토록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높고 낮음에 따른 개별 편차, 지역적 편차가 생기고 그 간격이 점차 벌어지면서 많은 영역에서 공식화되지 않은 격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편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4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면서 공장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하부생산단위의 책임뿐 아니라 권한을 강화시켰다. 하부단위, 지역단위의 자율성과 권한이 생기면서 중앙의 통제력과 보장성은 떨어지게 되었고,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자율성 만큼 책임 또한 커졌다. 격차가 생기고, 책임이 전가되면서 환자개인의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의료시장이 형성되고, 개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의료서비스 및 약품 접근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도록 하는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5. 평가와 시사점

북한의 의료기관의 물품 및 의약품 부족 현상은 현재의 환경에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보건의료 영역의 대외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외의존도는 높는데, 대북제재 강도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정치적 환경과 연계되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음을 보건의료 영역 외적 다른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북한의 내수산업의 규모와 질이 느린 속도이지만 개선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의료 물품과 의약품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술적 지원 및 원재료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보건의료적 자립도를 높여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은 따라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민부의 격차 형성과 그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생기는 부분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주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에서 보건의료 영역은 정치적 상황과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공식 의료시장의 규모와 이로 인한 환자 의료비 자부담 비율에 대한 정보는 다른 공식적인 보건지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환자의 의료비 증가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또한 커진다.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은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공개자료와의 통합적 분석이 함께 이뤄진다면 보다 균형 잡힌 북한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제5장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 김유연, 최은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북한이탈주민 조사 참여자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5-1>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조사 참여자 연령의 평균 추세선을 2011년부터 그려보면, 2014년에 비약했고 작년과 올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장의 <표 1-3>과 같이 2015년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조사 참여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다. 최근 이루어진 북한의 '새 세대'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을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지닌 집단으로 보고 북한 체제변동의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²⁸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북한에서 1980-1990년대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며,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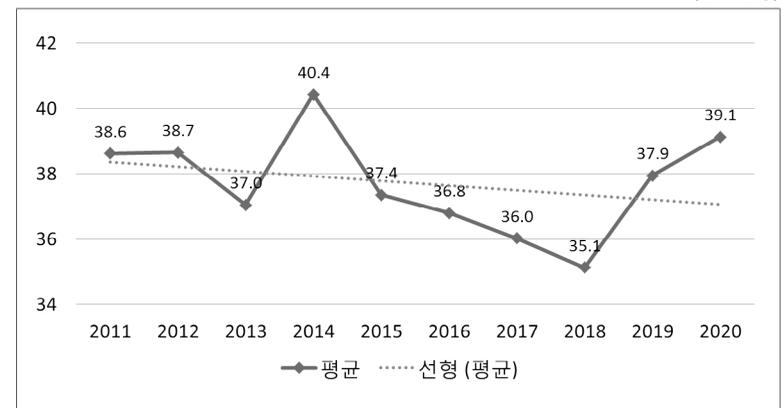
28_강원철, "북한 장마당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은숙, "북한 신세대의 노동환경과 노동의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적인 배급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장마당으로 내몰린 세대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들에겐 '장마당세대'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며, 북한의 정치적 자유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변혁의 세대'로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²⁹ 최은정 조사원도 지난 5년 동안 북한 이탈주민 조사를 실시하면서 연령대가 낮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연령대가 높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이들이 국가나 부모가 정해주는 삶이 아닌,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삶을 선택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대 북한이탈주민들에 주목하여 이 세대가 탈북 결심 이유에서 보이는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북한 교육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새롭게 추가된 설문문항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 조사 참여자 연령 평균 추세선

(단위: 연령)



29_채경희,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2019, p. 314.

2. 새로운 세대

1)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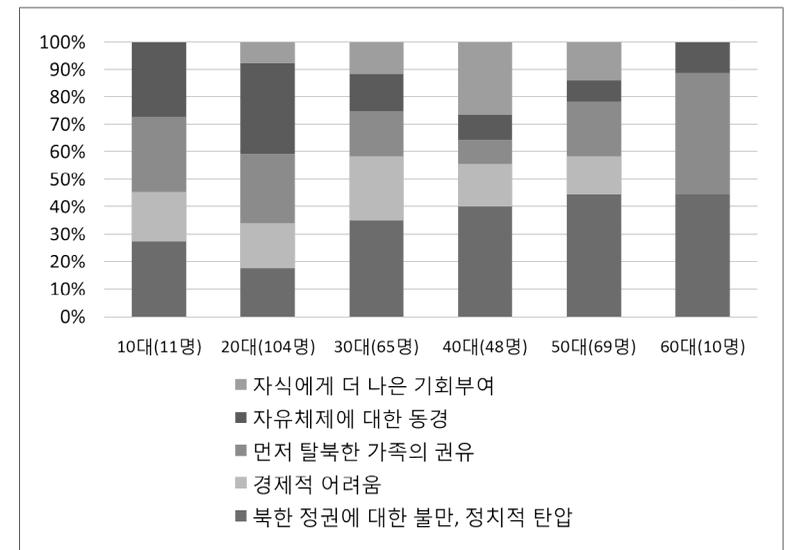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문항에 포함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북한주민 통일 의식』에서 분석된다. 2019년 조사결과에서 2018년에 비해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는 응답이 증가했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이라는 응답이 감소했지만, 여기서는 2018-2020년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2>와 같이 10대와 60대는 빈도수가 적어 비교가 어렵지만, 20대와 40-50대로 구분하여 비교해봤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0-50대는 탈북 결심 이유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20대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었지만, 경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7년부터 입국해 있는 3,000명의 표본을 조사한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데, 본 조사는 직전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더욱 최근의 동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탈북 결심 이유 보기 중 ‘자유체제’라는 용어를 응답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20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유체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사 시행 중 북한이탈주민들과

간략히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북에서 남으로 오길 결심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의 대중매체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체제’보다는 ‘자유’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문화’로 해석했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매체를 통해 이상화시켰던 남한 사회의 이미지와 자유를 연결시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 및 그들의 응답 경향성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유 추구 및 개인주의적 의식을 갖는 세대로 구성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2>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2018-2020)

(단위: %)



3.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1)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북한은 ‘교육의 나라’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956년 “동방에서 제일 먼저” 4년제 초등의무교육제를, 1960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했다.³⁰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식량난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되어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³¹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학교 등록률이 정확히 몇 %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2000년대 들어 식량난이 개선된 이후 학교 등록률도 다시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네스코에서는 북한 학교의 순 등록률을 2009년 기준 초등교육 94.03%, 2015년 기준 초등교육 90.98%, 중등교육 90.09%로 추정했다.³²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09명 중 74.3%는 중학교(초급 중학교, 고급중학교) 재학 시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했다. 한 달에 1~3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과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동일하게 10.1%였고, 11일 이상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였다. 중학교 출석률에 시기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별로 나누

30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p. 65),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3, pp. 61-67.

31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5권 2호, 2004, pp. 60-61.

32 UNESCO UIS, <http://uis.unesco.org/en/country/kp> (검색일: 2019.11.4.)

어 살펴보면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0대보다 10-30대에서 더 낮고, ‘한 달에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처음 포함된 문항이라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중학교에 진학했던 세대에서 출석률이 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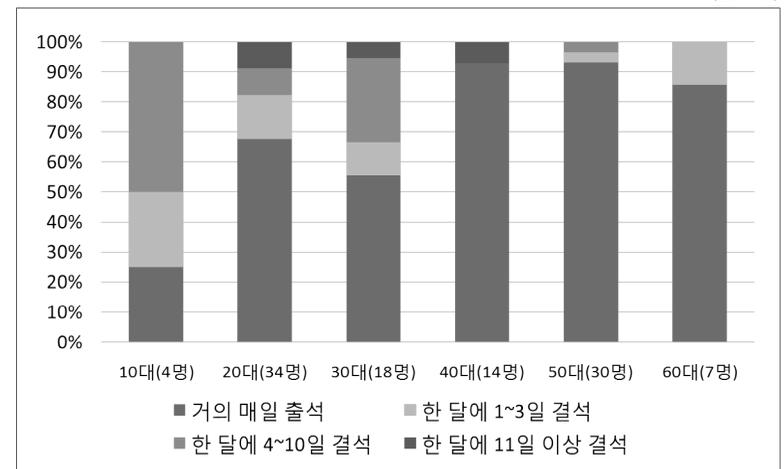
〈표 5-1〉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단위: 명, %)

구분	2020년
거의 매일 출석	81 (74.3%)
한 달에 1~3일 결석	11 (10.1%)
한 달에 4~10일 결석	11 (10.1%)
한 달에 11일 이상 결석	5 (4.6%)
무응답	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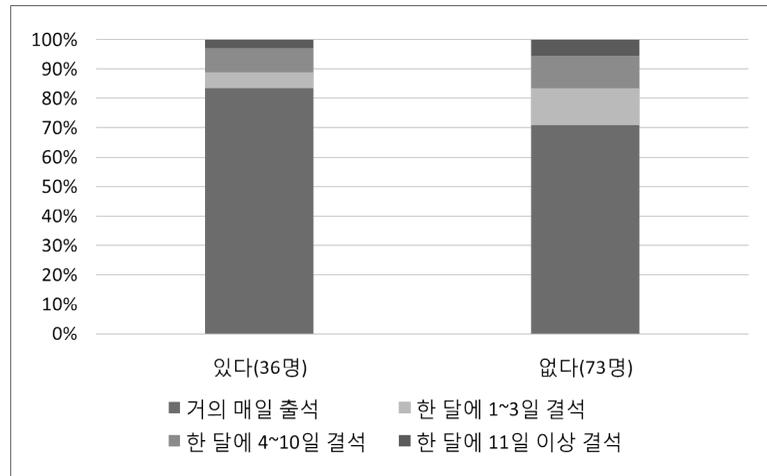
〈그림 5-3〉 연령대별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

(단위: %)



제2장에 서술된 본인이나 자녀의 과외공부(개인강습)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교 출석률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중학교 출석률이 없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다소 높아 교육열과 학교 출석률 간 약한 상관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5-4) 과외공부(개인강습) 경험에 따른 중학교 재학시 출석률 (단위: %)



2)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문의 공적 투자가 급격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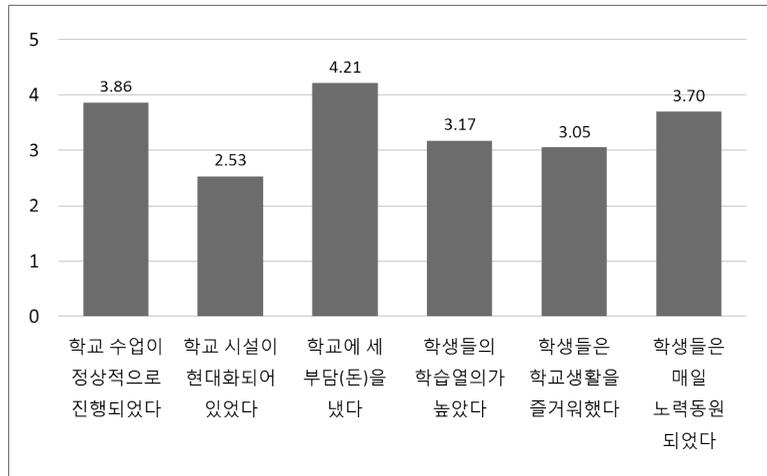
는 동안 사부담 공교육비가 급증했는데, 학생 개인이 소모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확보 등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³³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 본 결과, 학교 수업 진행, 학생들의 학습열의, 학교생활의 즐거움, 노력동원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답변이 나온 반면, 학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학교 '세부담(잡부금)'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로 높은 점수가 기록되었다. 이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사부담 공교육비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조사 참여자의 출신 지역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시설 현대화의 지역 간 격차와 도시-농촌 간 격차를 유념해야 하며, 북한에서는 해방 후부터 보통교육 시설의 개선이 지역의 행정기관, 기업소, 농장, 학부모에 의해 수행되어 온 관습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무상교육의 원칙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3_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p. 111.

〈그림 5-5〉 중학교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 5점척도)



3)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북한의 교원은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서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본보기가 될 것을 요구받아 왔으며, 그만큼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 당시 교원들에 대한 배급이 끊기면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물질 요구자 혹은 지시 전달자’가 되어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 본 결과,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교사의 가르침이 믿을 만하다는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답변이 나온 반면, 교원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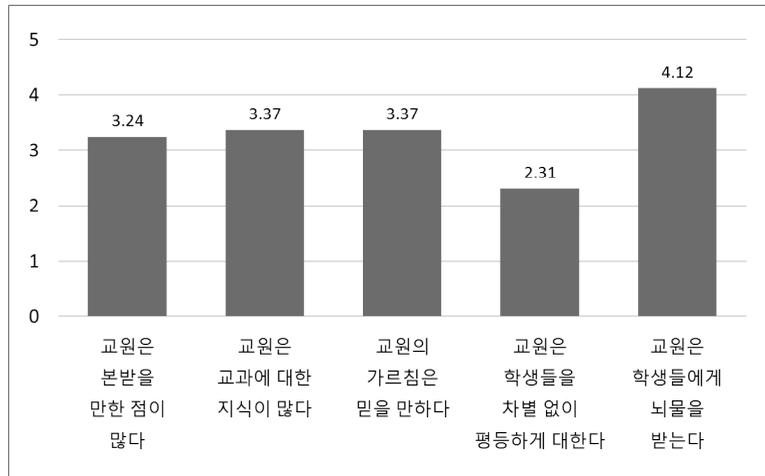
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뇌물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로 높은 점수가 기록되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토끼가죽 몇 매 내, 토끼가죽 없으면 돈 얼마 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부담을 낼 것을 요구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을 눈에 띄게 차별하는 교사의 행태³⁴가 최근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 참여자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의 인식에 대해 물어봤음에도 본인의 재학 시절을 기준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시대 들어 교원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법 및 보통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 회복과 생활조건 보장을 도모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⁵

34_김정원 외,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p. 185).

35_김지수 외,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진천: 한국교육개발원, 2019, pp. 145-157).

〈그림 5-6〉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단위: 5점척도)



4. 제1중학교 및 대학 진학 요인

1) 제1중학교 진학 요인

엘리트 선발체계는 각국의 계층 이동성 및 교육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의 대학입학 제도는 1970년대까지 지원자의 출신 성분, 조직생활 등을 고려한 추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예비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학별 전형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³⁶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수재교육도 1970년대 말까지

36_신효숙, "북한의 대학교육과 대학입시," 『수행인문학』 제37집 제2호, 2007, pp. 52-53.

사회주의 평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체능분야 및 이과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0년대 김정일의 주도로 과학기술분야 수재교육기관인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했다. 1984년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각 도에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했고, 1999년부터는 각 시·군·구역까지 200여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모든 중등학생들을 능력별로 선발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후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군별 경쟁이 과열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낮아지자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고 수재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9년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만 남기고 제1중학교를 다시 일반 학교로 전환했다.³⁷ 그러나 여전히 “누가 제1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즉, 북한에서 1970년대까지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이 엘리트 선발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능력주의(meritocracy)적 선발기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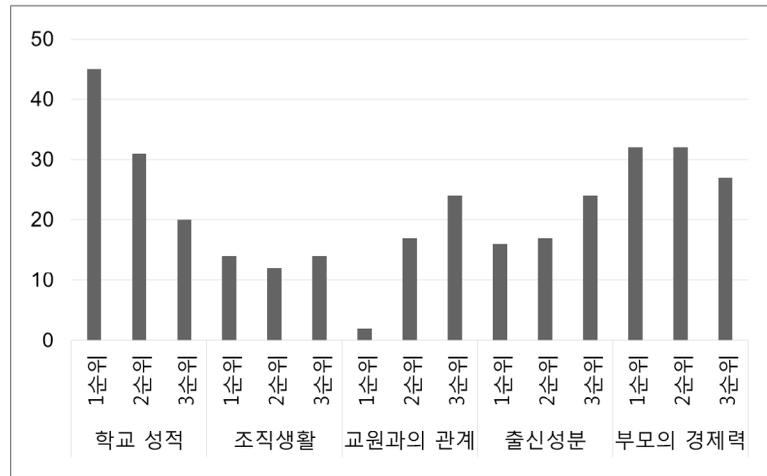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1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1, 2, 3순위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림 5-7〉과 같은 빈도로 요인들이 선택되었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학교 성적이었고,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부모의 경제력이었다. 각 요인별로 1순위 빈도에 3점, 2순위 빈도에 2점, 3순위 빈도에 1점을 곱하면 학교 성적 72점, 부모의 경제력 62점, 출신성분 35점, 조직생활 27점, 교원과의 관계 21점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1중학교가 “철저하게 실력에 기초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체계이

37_김유연, “북한의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 38-44.

나, 부모의 경제력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자녀가 제1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5-7〉 제1중학교 진학 요인 우선순위

(단위: 빈도)



2) 대학 진학 요인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1980년대부터 대학입시 제도를 능력 중심 선발체제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 대학 교원에 대한 배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학 입시비리와 학생에 대한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26.8%로 추정되는 북한의 고등교육 총 등록률은 같은 해 95.9%로 추정되는 한국이나

84.6%로 추정되는 러시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록률을 보인다.³⁸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뚫고 대학 추천서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사업(뒷돈거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 같은 곳에 입학하자면 점수도 좋아야 하지만, 최소 미화 4천~5천 달러가 든다.”는 증언도 나왔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권세가 있는 노동당 간부나 군부의 자녀들은 이 돈이 필요 없다.”라는 진술³⁹을 보았을 때 대학 진학의 기본요인은 학교 성적과 출신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인식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1, 2, 3순위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림 5-8〉과 같은 빈도로 요인들이 선택되었다. 제1중학교 진학 요인과 다르게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부모의 경제력이었고, 2순위는 출신성분, 학교 성적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각 요인별로 1순위 빈도에 3점, 2순위 빈도에 2점, 3순위 빈도에 1점을 곱하면 부모의 경제력 74점, 학교 성적 60점, 출신성분 50점, 조직생활 17점, 교원과의 관계 17점 순으로 나타난다. 제1중학교 진학 요인에서는 학교 성적이 1순위 요인으로 선택된 반면, 대학 진학 요인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1순위 요인으로 선택된 점이 흥미롭다. 학교 성적은 3순위로 많이 선택되었고, 순위를 점수화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 또한 제1중학교에서보다 출신성분이 차지하는 순위가 높아 대학 진학에 가정배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

38_UNESCO UIS, <http://uis.unesco.org/en/country/kp> (검색일: 2020.10.17.)

39_한영진, “무로교육 외치는 북한 대학 ‘비리 투성이’,” 『北韓』 516, 2014, p.128.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과 뒷돈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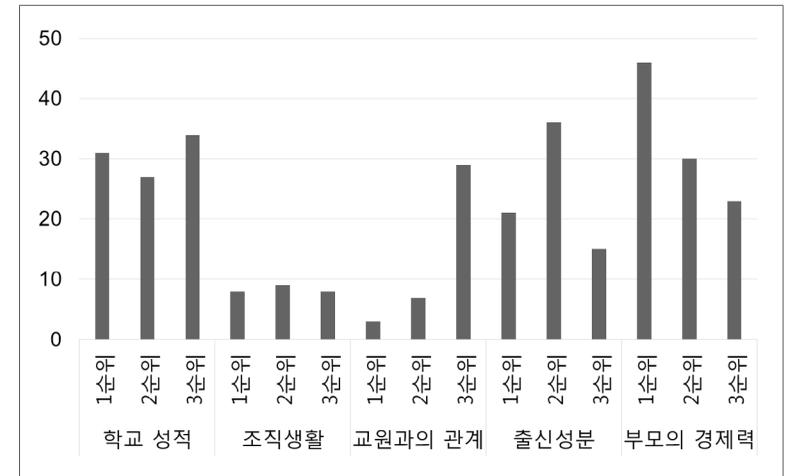
북한 당국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2011년 제정된 보통교육법 제52조 1항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학교 입학 및 수업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시비리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 2016년경부터는 지역에서 대학입학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⁴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대의 입시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간부들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보도된 사건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¹

40_김지수 외,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p. 174.

41_“국정원 “평양의대 입시비리 발생해 간부 직위해제”, 『조선비즈』, 2020.11.27.

〈그림 5-8〉 대학 진학 요인 우선순위

(단위: 빈도)



5. 평가와 시사점

정치적·사회경제적 격변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령대별로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고, 세대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기는 파급 범위와 그 후 발생한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세대를 가로지르는 격변이었으며, 그것을 성인기에 보낸 세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에 보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결심 이유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 20대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탈북 결심 이유로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들이 ‘자유체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남한에서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높은 기대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으론 학업, 취업, 주거 등 살아가면서 겪게 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 시 세대 및 그에 따른 북한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하나의 준거로 작용해야 한다.

북한의 1980-1980년대생이 장마당세대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학령기에 고난의 행군기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붕괴를 경험했고, 그 중 일부는 학교 갈 시간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중학교 재학 시 출석률이 낮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당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사 참여자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다는 응답은 낮은 반면 세 부담을 낸다는 응답은 높게 나와, 그러한 노력이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원에 대한 인식 또한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응답은 낮은 반면 뇌물을 받는다는 응답은 높게 나와 교원이 본받을 만한 점이 많거나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느끼는 것과 별개로 교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학교 시설 유지·보수가 지역의 행정기관, 기업소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참여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교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기회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1중학교를 통해 능력주의적 체계를 작동시키려 하고 있으나, 비공식 영역에서 능력을 얻기 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고등교육 입시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다. 제3장의 <그림 3-3>에서처럼 경제적 계층 분화의 이유 1, 2순위로 본인의 직위, 권력층 인연이 선택된 것을 보았을 때 직위가 높고 권력층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력을 갖추고 자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엘리트 계층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에서도 입시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인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교육체제의 공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그동안 양적 조사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본 장은 2020년 처음 포함된 교육 실태에 대한 문항들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살펴봤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추세 분석이 이루어지고 심층 연구를 통해 질적 자료가 보충된다면 북한의 젊은 세대 및 그들을 둘러싼 역학을 이해하고 북한 사회 전반의 계층 이동성과 교육 공정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총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총론

결장

2020년의 북한사회변동 조사의 결과 북한의 사회 경제적 활동들은 대체로 지난 수년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북 제재는 2019년 북한사회의 현실에도 분명히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공식 경제활동 참여나 공식소득이 감소하는 측면, 열악한 보건의료의 상황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장마당과 비공식 경제에서의 유통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북한이 2015년 이후 소비재를 국산화하려는 노력도 소비양상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시장화의 경향은 지속되어 그 영향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어 의식주 생활, 소비생활, 정보화, 사교육, 보건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시장에 의존하는 양상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과 소비, 보건 의료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계층간 차이도 가시화 되고 있다.

먼저 의식주와 소비 생활을 살펴보면, 식생활의 양과 질에 있어서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다만 식생활에 있

어 젠더간 불평등이 눈에 띄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식량이나 식료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주택, 교통과 운수, 교육 영역에서도 경제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주택을 자기돈으로 구입한 비중이 2018년에 39.3%에서 2019년 58.6%, 2020년에는 74.3%로 급격히 상승했고, 식당이 늘면서 외식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휴대전화로 송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한 가전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주택 내 태양광 판넬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에 있어서는 2015년 이후 소비재 국산화로 공산품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옷의 원산지가 북한산인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21.1%에 달했다. 장마당 이외에도 백화점 및 외화상점에서 의류 구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상류층 유형의 소비도 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층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형태가 달라져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TV, 냉장고 등 내구재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보급과 집 유선전화 보유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유율이 증가하는 중이며, 컴퓨터 보유율이 2019년 40.5%로 조사된데 이어 2020년에는 45%로 조사되었다. 다만 컴퓨터 이용 경험에 있어 역시 남녀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제재와 함께 시장화가 지속된 결과 북한의 공식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89.7% 대비 감소하여 71.5%이 되었고, 비공식 경제 참여율은 91.7%였다. 공식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여기엔 계층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비공식 소득의 경우 중간값을 기준으

로 할 때 올해 소폭 하락하였지만, 무엇보다 계층간 비공식 소득 차이가 뚜렷했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등에서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은 작년 까지도 주로 단속과 뇌물의 문제였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사업 밀친 마련'과 원자재 확보 어려움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혀서 사업 자금과 원자재의 조달에 다소 어려움이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화가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계층 변화의 중요 요인으로 정치 사상성이나 출신성분 요인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층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유나 개혁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았고,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은 과도한 군비 지출,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설문은 지속하였는데,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8% 정도로 예년과 유사했고 대의 의존도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의료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제한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비공식 경제에서의 소득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앞으로 북한이 내수 산업으로 의료물품과 의약품을 생산할 환경을 조성 중인 것도 주목해야겠지만, 빈부격차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에 격차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에는 북한에서의 교육 분야와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처음으로 추가했는데, 북한이탈주민중 20대가 탈북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이었고, 30~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탄압'을 꼽았다. 다른 면담 조사들을 참조할 때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대중매체를 접하고 그런 자유로운 문화를 동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화가 진전되는 만큼 그런 과정에서 진전되는 계층의 분화와 함께, 세대간 인식의 차이도 연결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 주민에 대한 의식조사의 경우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높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중 젊은 세대의 경우 남한의 자유를 동경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것이 탈북 루트의 형성으로 인해 더 소득이 높은 가족이 남한으로 오기 때문일 가능성도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북한에서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중등, 고등 교육에 진학하는데 시장화와 소득의 분화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1중학교 진학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고 2순위는 부모의 경제력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 진학에서는 1순위가 부모의 경제력, 2순위는 출신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이 제1중학교의 진학이나 대학진학 모두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목해야할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교육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에 나타날지 아니면 새로운 계층적 분화와 격차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던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도 활발하지 않았으며, 비핵화와 체제의 해체에 관한

북미, 남북간 협상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사회내부의 변화는 제재의 지속에 따른 제약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 걸친 시장화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2020년의 상황은 대체로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부록
설문지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참여사용 설명문

NO.

연구과제명 :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연구책임자명 : 임경훈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사회변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본 연구가 왜 수행되고 어떤 내용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 조사의 목적은 탈북 이전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의식주 생활, 경제생활, 소비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 2019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만18세 이상인 분들 중 150여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 귀하는 본 설문지를 읽고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여 응답하시면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약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 예,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성하신 설문지는 즉시 폐기 처리되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6.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 아니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한 사례로 4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8.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이름: 김학재 HK교수 · 전화번호: 02-880-2208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02-880-5153

9. 연구에 대해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경훈 교수(02-880-1325)입니다. 설문지 원자료는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준하여 이중 철재 보관함에 넣어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통일평화연구원 209E호)에 1년 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이 외에 사례비 지급을 위해 설문참여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수집되며 이 정보는 사례비 지급과 동시에 폐기됩니다. 설문 내용을 형식에 맞게 입력하여 정리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을 떠나오기 전 본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문1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의 귀하의 식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보통 하루 몇 끼를 먹었습니까?

- ① 하루 세 끼 이상
- ② 하루 두 끼
- ③ 하루 한 끼
- ④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2) 식사를 할 때 보통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

- ①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 ②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었다.
- ③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
- ④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어 먹었다.
- ⑤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
- ⑥ 기타 (적어주세요:)

(3)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 ① 거의 매일 먹었다.
- ②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④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⑤ 먹은 적이 없다.

(4) 귀하가 북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③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문2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의 귀하의 의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으셨습니까?

- ①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 ②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 ③ 1년에 한두 벌 정도
- ④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 ⑤ 산 적이 없다.

(2) 입을 옷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① 장마당(시장)에서 사 입음
- ② 국영상점(직매점 포함)에서 사 입음
- ③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에서 사 입음
- ④ 직접 또는 친척을 통해 외국에서 사 입음
- 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음
- ⑥ 기타 (적어주세요:)

(3) 입을 옷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 ② 중국
- ③ 남한
- ④ 일본
- ⑤ 러시아
- ⑥ 기타 (적어주세요:)

문3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 귀하가 살았던 살림집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서 사셨습니까?

- ① 아파트
-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 ③ 독집(단독주택)
- ④ 기타 살림집(적어주세요:)

(2) 살았던 살림집은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 ① 국가에서 배정받음
- ② 돈 주고 샀음
- ③ 직접 지었음
- ④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받음
- ⑤ 친척이나 주변 사람한테 받음
- ⑥ 기타(적어주세요:)

(3) 다음 중 살림집에 있었던 것을 모두 골라 표시해주세요.

- ① 텔레비전
- ② 냉장고(냉동고 포함)
- ③ 전기밥솥
- ④ 세탁기
- ⑤ CD 플레이어(알판 재생기, 노트텔, 녹화기 포함)
- ⑥ 집전화
- ⑦ 손전화(휴대전화)
- ⑧ 컴퓨터(노트북 포함)
- ⑨ 자전거
- ⑩ 오토바이
- ⑪ 가축(집짐승)
- ⑫ 텃밭
- ⑬ 태양광 전지판

문4 북한에 살았던 당시 귀하의 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북한에서 본인의 손전화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1)-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2)로 이동)

[1]-1 손전화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장사 또는 사업일
- ② 일상적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
- ③ 직장 등에서 공적인 업무
- ④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놀이(게임) 등 오락용
- ⑤ 기타(적어주세요:)

[2] 북한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2)-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3)으로 이동)

[2]-1 컴퓨터는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였습니까?

- ①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 ② 본인의 집
- ③ 이웃, 친척, 친구의 집
- ④ 기타 (적어주세요:)

[3] 북한에서 인터넷(해외접속이 차단된 북한 내부망)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3)-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4)로 이동)

[3]-1 인터넷을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였습니까?

- ①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 ② 본인의 집
- ③ 이웃, 친척, 친구의 집
- ④ 기타 (적어주세요:)

[4] 북한에서 남한산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4)-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5)로 이동)

[4]-1 사용해 본 적이 있던 남한산 물건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의류
- ② 식품
- ③ 잡화(화장품, 신발, 시계, 귀금속 등)
- ④ 가전제품(TV, 라디오, 밥솥, 녹화기, 손전화가, 컴퓨터 등)
- ⑤ 기타(적어주세요:)

[5] 일상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돈 버는 것
- ②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 ③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 ④ 조직생활
- ⑤ 출세
- ⑥ 자녀 교육
- ⑦ 기타(적어주세요:)

[6]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로 결정하였습니까?

(기혼자의 경우는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경우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 ①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 ②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③ 부인이 주로 결정하되 남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④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 ⑤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7]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돈을 주고 자녀에게 따로 과외공부(개인강습)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7)-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5로 이동)

[7]-1 자녀에게 시킨 적이 있는 과외공부(개인강습)가 있으면 모두 골라 표시해주세요

- ① 음악(악기, 성악 등)
- ② 외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 ③ 컴퓨터
- ④ 체육
- ⑤ 무용
- ⑥ 교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
- ⑦ 기타 (적어주세요:)

문5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평균 수입 중에서 아래 제시된 것들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예시에 나온 것처럼 적어주세요.

(※ 총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숫자로 숫자로 적어주세요.)

* 예시: 총합: 100%

- ① 먹는 것 (30%)
- ② 입는 것 (10%)
- ③ 살림집 (20%)
- ④ 자녀교육 (10%)
- ⑤ 저축 (15%)
- ⑥ 문화생활 (10%)
- ⑦ 기타 (5%)

- ① 먹는 것 ()
 - ② 입는 것 ()
 - ③ 살림집 ()
 - ④ 자녀교육 ()
 - ⑤ 저축 ()
 - ⑥ 문화생활 ()
 - ⑦ 기타 ()
- ☞①~⑥에 사용한 것 이외의 모든 것(병원비, 약값, 교통비, 통신비 등)을 합한 액수를 비율로 적어주세요.

문6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북한주민의 계층 비중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층, 하층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상층(%),
중층(%),
하층(%)

문7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 가장 못 사는 도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평안남도 ② 평안북도
- ③ 함경남도 ④ 함경북도
- ⑤ 자강도 ⑥ 양강도
- ⑦ 황해남도 ⑧ 황해북도
- ⑨ 강원도

(가) 가장 잘 사는 도 ()
(나) 가장 못 사는 도 ()

문7-1 그림, 평양을 제외하고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 가장 못 사는 시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신의주 ② 청진 ③ 라선
- ④ 혜산 ⑤ 원산 ⑥ 남포
- ⑦ 평성 ⑧ 사리원 ⑨ 개성

(가) 가장 잘 사는 시 ()
(나) 가장 못 사는 시 ()

문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잘 사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중앙당 간부
- ② 지방당 간부
- ③ 법기관(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간부
- ④ 인민위원회 간부
- ⑤ 전문직(의사, 교수, 기술자 등)
- ⑥ 외화벌이
- ⑦ 군관
- ⑧ 시장 상인(장사)
- ⑨ 기업소·공장 간부
- ⑩ 기업소·공장 노동자
- ⑪ 농장 관리일꾼
- ⑫ 농장원

(가) 가장 잘 사는 직업
1순위(), 2순위()
(나) 중간 정도 사는 직업
1순위(), 2순위()

(다) 가장 못 사는 직업
1순위(), 2순위()

(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사람들 중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당 일군
- ② 법기관 일군(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등) 간부
- ③ 인민위원회 일군
- ④ 지배인
- ⑤ 조직생활 일군(직업동맹, 농근맹, 여맹, 청년동맹 일군)
- ⑥ 인민반장
- ⑦ 돈주

1순위(), 2순위()

(2)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사람들 중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당 일군
- ② 법기관 일군(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등) 간부
- ③ 인민위원회 일군
- ④ 지배인
- ⑤ 조직생활 일군(직업동맹, 농근맹, 여맹, 청년동맹 일군)
- ⑥ 인민반장
- ⑦ 돈주

1순위(), 2순위()

문9 귀하는 현재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누는 차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에
- ②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 ③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 ④ 가족관계(친척 포함) 때문에
- ⑤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에
- ⑥ 사는 지역의 차이 때문에
- ⑦ 개인 성격 또는 자기 노력의 차이 때문에

- ⑧ 출신성분의 차이 때문에
- ⑨ 운수소관 (자기 팔자 때문에)

문1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의 세 시기에 각각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주세요.

(가) 1994년~ 1999년	(나) 2000년~ 2004년	(다) 2005~ 2010년	(라) 2011년~ 탈북 전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문1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총합은 북한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직장을 나가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2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부업(더벌이)을 했고, 그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입이 북한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 만일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아무도 장사나 다른 부업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 0원이라고 써주세요.)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장사나 부업으로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벌어들인 전체 수입 중에서 각종 뇌물로 고인 액수의 비율은 얼마나 되었는지 골라주세요.

- ① 10% 이하
- ② 20% 이하
- ③ 30% 이하
- ④ 40% 이하
- ⑤ 50% 이하
- ⑥ 50% 이상
- ⑦ 전혀 없음

문14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로 표시해주세요.
(※ 위의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5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 ① 소매장사 (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 ② 개인 편의봉사 (이동 미용사, 전자제품 수리공, 집 수리공 등)

- ③ 개인 (임)가공 (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 ④ 식당, 상점 임대 운영
- ⑤ 되거리장사 (차판장사, 도매장사)
- ⑥ 외화벌이 계통 (수출 원천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포함)
- ⑦ 돈장사
- ⑧ 삿벌이 (가대기군, 소토지 임시노력, 바다 임시노력 등)
- ⑨ 해외 파견노력 근무 (벌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
-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⑪ 해당 없음 (☞ 질문 19로 이동)

문15 위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③ 1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5년 미만
- ⑤ 5년 이상

문16 위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자신의 사업 수완 부족
- ② 사업자금(밀천)을 마련하는 일
- ③ 장사 물건이나 원료, 자재를 확보하는 일
- ④ 같은 업종의 경쟁자들이나 수입상품과의 판매 경쟁
- ⑤ 도로, 철도 사정
- ⑥ 전기 사정
- ⑦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 고이는 일
-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17 14번 문항에서 ①~⑥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1)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느 나라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 ② 중국
- ③ 남한
- ④ 일본
- ⑤ 러시아
-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1)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 ① 북한
- ② 중국
- ③ 남한
- ④ 일본
- ⑤ 러시아
-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18 14번 문항에서 ①~⑦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위의 일을 할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질문 19로 이동)

③ 누구나 자유롭게 공장이나 기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④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⑤ 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1) 18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 (가) 연간 평균 몇 명을 고용했습니까?
(약 명)
- (나) 연간 평균 얼마 동안 고용했습니까?
(약 일 또는 개월)

문19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셨습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②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문2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사상성(수령·당에 대한 충실성,
자력갱생정신 등) 강화
- ② 과학기술 발전
- ③ 경제관리방법 개선
- ④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 ⑤ 자본주의 도입
- ⑥ 기타 (적어주세요:)

문21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전에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나올 때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이 없다’를 선택해 주세요)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시·군(구역) 인민병원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도 중앙병원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문22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진료소(치과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질문 22-1번으로)
- ② 아니오
- ③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1) 북한에서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증상이 가벼워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 ③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 ④ 교통편이 불편해 병의원 등에 가기
힘들어서
- ⑤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⑥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 ⑦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
- ⑧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서
- ⑨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서
- ⑩ 기타 (적어주세요:)

문23 귀하는 호담당지사, 진료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뒷돈(고인돈)을 내거나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선물을 준 경우, 무엇을 주었는지 적어주세요:)
- ② 아니오
- ③ 병의원 치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문24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호담당지사, 진료소, 병원 개인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장마당, 또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 본인이 장마당, 개인약국 등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병의원, 진료소에 약이 없어서
- ② 병의원, 진료소에서 처방한 약을 사기 위해서
- ③ 병의원, 진료소 약보다 효과가 좋아서
- ④ 기타 (적어주세요:)

문26 다음 시기 별 귀하의 키(신장 cm)와 몸무게(체중 kg)은 어떻게 됩니까?

	키(cm)	몸무게(kg)
오늘 현재	___cm	___kg
북한 출국 당시 ___년___월	___cm	___kg

문27 북한 병원에 약이 없어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진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_____년

문28 북한에서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면 얼마나 자주 학교에 갔습니까?

- ① 거의 매일 출석
- ② 한 달에 1~3일 결석
- ③ 한 달에 4~10일 결석
- ④ 한 달에 11일 이상 결석

문29 북한에서 제1중학교(1고중)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학교 성적
- ② 조직생활
- ③ 교원과의 관계
- ④ 출신성분
- ⑤ 부모의 경제력

문30 북한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학교 성적
- ② 조직생활
- ③ 교원과의 관계
- ④ 출신성분
- ⑤ 부모의 경제력

문31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생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①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1	2	3	4	5
② 학교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었다.	1	2	3	4	5
③ 학교에 세 부담(돈)을 냈다.	1	2	3	4	5
④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높았다.	1	2	3	4	5
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했다.	1	2	3	4	5
④ 학생들은 매일 노력 동원되었다.	1	2	3	4	5

문32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한다	조금 만족 한다	보통 이다	조금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① 교수원은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	1	2	3	4	5
② 교원은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다.	1	2	3	4	5
③ 교원의 가르침은 믿을 만하다.	1	2	3	4	5
④ 교원은 학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1	2	3	4	5
⑤ 교원은 학생들에게 뇌물을 받는다.	1	2	3	4	5

문33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매우 만족 한다	조금 만족 한다	보통 이다	조금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① 사회보장	1	2	3	4	5
② 무상치료	1	2	3	4	5
③ 무상교육	1	2	3	4	5
④ 무상보육	1	2	3	4	5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52

북한사회변동 2020

발행 2021. 0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자 김학재 · 김병로 · 정은미 · 이종민 · 박상민 · 이혜원 · 김유연 · 최은정 · 임경훈 · 최현정
주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화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화 031) 5176-2332
팩스 031) 624-4751
홈페이지 ipus.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395-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북한사회변동 2020 : 시정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저자: 김학재 · 김병로 · 정은미 · 이종민 · 박상민 · 이혜원 · 김유연 · 최은정 · 임경훈 · 최현정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 52)
권말부록: 설문지
ISBN 979-11-966513-8-1 93340 :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